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4 7 | 8



서울시 중구 정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인 여자인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비닐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99호 2004년 07/08일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목은이 이강선주, 김희정/펴낸날 2004년 7월 5일

여는 글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하세요	허미선	2
보육 정책	6.11 육아지원정책이 보육현장에 미칠 영향	교육정책팀	4
보육활동			
아동교육	영국보육교사의 하루	정희연	11
포괄적사례	사과나무'를 심다 - 주민과 함께...	황미혜	17
좋은그림책소개	우리 언니	김정애	25
그림책을 읽어주고	『높이 더 높이』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김옥희	28
옛이야기	옛이야기 속의 도깨비	민경아	30
어린이와 환경	준비된 나들이, 유아를 위한 안전하고...	윤선화	34
아이들과의 하루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씩씩이 아이들의 말! 말!! 말!!!	씩씩이 어린이집	40
보육교사일기	교사의 적응기	이승희	42
육아일기	상구와 송이에게 삼촌으로 돌아온 상현이...	주로미	44
만나고 싶은 사람			
새내기인사	1년을 뒤돌아 보며...	고경애	46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그녀, 그 이름 손수정!	이순	48
힘내라보육교사			
보육교사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쯤인가?		편집부	50
지부활동			
신입회원교육을 마치고...		이종희	60
태백산맥을 다녀와서(스승의 날 기념)		최미라	61
어린이날 행사를 마치고.....		이복례	64
보육조례제정을 향한 한걸음 또 한걸음		김순아	66
스승의 날에 회원 가입을 한 새내기생의 행사 참가기		서은임	68
스승의날 행사에 참석한 후		김정희	69
중앙활동	돌봄의 보육철학 : 기나긴 2년을 돌아보며	조선경	71
지금 현장에선	구로 미래 어린이집	동성혜	74
세상읽기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 최저임금 76만6천원	이윤경	82
상담실 Q&A	"출산휴가, 육아휴직"	편집부	84
알림란		편집부	88
보육계풍향		편집부	91
소식과 소식		편집부	92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하세요.

하 미 선 · 회원

보육현장에서 15년을 맞이합니다.

"너라면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어울릴거야"란 친구들의 의견과, 여성의 직업으로 꽤 괜찮은 것 같다는 세상의 잣대 속에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빈곤과 소외의 현장에서 보육을 담당해 오던 지역탁아소들이 어린이집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보육의 장을 열기 시작했고, 기존의 새마을 유아원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금까지 아이들을 돌봐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란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던 그때, 아이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즐겁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혹, 감기라도 걸리면 밥은 걸러도 약은 꼭 먹고 자고 아침이면 목숨 걸고 출근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모습에 행복하기도 했고, 짓궂은 아이의 행동에 흠뻑거리며 울기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어쩐지 정신연령도 유아기에 머물러서 얼굴도 마음도 유치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울고 웃으며 성실하게 생활하면 언젠가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걸걸한 목소리는 동료들과 동일 인물로 오해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역할이 더 이상 아이를 가르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도 막연히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보육의 중요성과 사회적인 역할이 커지고 보육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기 보다는 개인의 일로 떠넘겨지고 있으며, 심지어 보육을 자본주의 경제시장 논리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시켜 무한한 시장경쟁에 내 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까지 생

겨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시장논리에 던져지게 되면 빈부 격차에 따른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지나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의 희생은 불을 보는 듯 뻔합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보육교사들은 변한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좋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일을 시작하고, 점심시간 잠깐이라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이 똑같습니다. 아파도 움직일 수 있으면 출근하고, 마음 편히 병가, 월차 한번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적은 임금을 받으며 아이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그 사랑에 묶여 스스로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똑 같습니다.

보육교사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욕심이 많아집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아이들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충분히 놀고 충분히 사랑 받으며 자라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 직업인으로서도 자랑스러운 보육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커 가는 욕심을 채우려면 교사인 저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옛말에 제 밥그릇은 자기가 쟁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린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자 만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란 말은 버리고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적극적이고도 치열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은 우리 보육 현장을 지켜 온 한국보육교사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길, 그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보육교사회 선생님들이 보육의 주체로堂堂하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보육교사로서의 저 자신이 대견해 집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 또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임을 알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잘거리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보육교사님들,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아이들 곁을 곳곳이 지켜 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하세요.

6.11 육아지원정책이 보육현장에 미칠 영향

정리 · 교육정책팀

지난 6월 11일 청와대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미래 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6월 12일부터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이관 받아 시작하는 첫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육아지원정책은 종전의 보육 정책에 비해 상당부분 새롭고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보육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는 육아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보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로부터 「육아지원정책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당일 회의에는 교육부총리, 여성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및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다음은 「육아지원정책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책의 목표 :

- 1)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계기로 부모의 책임이던 육아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함.
- 2) 보육 및 유아교육 기회를 대폭 확충하여 육아비용을 경감해 줌으로써 우수한 아동을 키워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

- 0세아 :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하도록 지원
- 산전·후 휴가확보,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적극적 모성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 (노동부)

- '06년부터 산전·후 휴가시 기업주 부담분 중 30일분을 국가부담으로 전환(현행 90일 중 60일의 급여부담)
- 육아휴직수당(현행 40만원)을 평균정액급여의 40%까지 지원('07년)
- 취업모에게 가정보육교사를 파견·지원 (여성부)
- 보육교사는 유아교육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을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쳐 양성하여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희망하는 가정에 파견·관리
- '05년도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 미취업모에게는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지원프로그램 보급,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parenting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여성부)

■ 0-4세아 : 아동의 70%까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을 통해 지원대상 아동을 현재 22.6%에서 '08년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가구까지(육아시설 필요아동의 70%) 지원 확대
-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
- 야간보육, 유치원 종일반 운영, 휴일보육 등 다양한 시간연장형 보육·교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부모들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5세아 : 대상 아동의 70%까지 무상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 만5세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되, '07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전체 5세아 아동의 약 70%)까지 지원
- 유치원의 숫자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보육시설에서의 유아교육기능도 강화하여 무상교육을 분담

■ 6-8세아 : 방과후 보육·교육 확대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 만6-8세아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오전수업만 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활용, 방과 후 보육 및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여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모의 만족도 제고
- 방과후 교실 운영
- 방과후 교실은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으로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에서 '1개교 1학급'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05년에는 180교로 늘리는 등 '08년까지 전체 초등학교(5,423교)의 50%로 확대 실시

□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은 연차적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특히 검증된 공익단체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토록 함으로서 다양한 특기·적성 서비스를 제공

■ 육아지원 방식의 개선과 육아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

□ 육아에 대한 아동별 지원 단계적 확대 (여성부)

- 현재의 보육·유아교육 예산지원은 아동보다는 시설위주로 되어 있어 아동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별로 시설 지원을 줄이고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나감
- 다만,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경과기간을 두고 아동별 지원으로 경영에 무리가 없는 곳부터 전환하며, 농어촌 지역 시설, 장애시설, 시간연장제 시설 등은 제외

□ 육아지원서비스의 질관리 시스템 구축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 육아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 인가제 및 평가인증제 시행, 보육 교사의 국가자격증제, 연수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

향후 추진 계획 :

- 금번 국정과제회의의 보고를 토대로 효과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적 실태조사 실시
- 보육시설·유치원 실태, 생활권역별 분포, 지역별 수요, 표준시설모형에 근거한 원가계산 및 아동별 지원 등을 위한 기초조사 등
- 이를 통해 '05년 초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단계별 추진

정책 시행 시 기대 효과 :

- 이번 육아지원정책은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 하고, 육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취업모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성의 취업을 및 출산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 '08년까지 34.6만 명 추가 가능
- 수혜아동이 '08년도까지 58만명 증가. 이에 따라 34만 6천여명의 여성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추가진출 가능(GDP증대: 17조 2,033억원)

■ 가계 부담 경감 : 점차 증가하여 '08년에는 연간 2조원 경감

- 현재 연간 4,131억원에 불과한 아동별 직접지원이 약 2조원 증가함으로써 정부의 이전 지출을 통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동일액 증가

■ 일자리 창출 : '08년까지 26만 개의 일자리 추가

- 현재 약10만여 명에 불과한 육아관련 일자리가 약 36만개로 증가

2. 아동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정책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단계별로 시설지원을 줄이고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보육에 대한 가장 큰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04년 전체 보육예산 중 54%)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04년 전체 보육예산 중 38%)이다. 그밖에 시설 보강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등이 있다. 발표에서는 아동별 지원을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는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대부분 민간시설인 현재의 조건에서는 아동을 유치하는 것이 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므로 시설 간 아동 유치경쟁이 과열되게 일어날 것이고 이는 시장의 경쟁논리에 의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아동별 재정 지원은 국공립시설 확충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민간시설에 지원할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비영리보육법인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서비스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아동별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아동별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단가에서 교사인건비는 고정비로 산정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경우 학교와는 달리 아동의 이동이 잦은 보육현장의 특성상 아동수의 변동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이나 고용상황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는 보육환경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육서비스 개선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보육교사라면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불안이 상존할 경우 보육서비스 질은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고 보육환경의 안정성도 훼손될 것이다. 또한 보육은 그 성격상 아동과 보육교사간의 지속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으로 아동의 안정적으로 보육 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질에 대한 담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건비가 전체 아동별 지원에 포함된다면 보육료 상승은 불가피하게 된다. 보육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보육료는 낮아지겠지만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려면 보육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구조에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보육교사는 대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또 부모가 내는(그리고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보육료에 인건비가 포함된다면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경력교사를 채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보육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개별 아동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와 부모가 소득에 따라 나눠 내는 방식으로 아동별 지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3. 가정보육교사 파견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0세아에 대해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양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율이 매우 저조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부진한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통해서 육아휴직이 정착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조부모에 의존하는 친족 양육방식도 한부모 가족의 증가, 노인세대의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 변화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래위가 제시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는 그 비용이 보육시설보다는 높을 것이므로 저소득층이 활용하기 어렵고 주로 중산층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영아보육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와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하겠지만 시설에서 보육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할 경우 자칫 0세아에 대한 양육환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파견되는 가정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이라는 공식적 기관이 아닌 개별 가정의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보육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과 돌봄의 질은 어떤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우려된다. 육아지원센터가 연수와 파견까지 할 수 있겠지만 가정보육교사가 개별 가정 공간에서 어떠한 보육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또한 가정보육교사는 개별사업자인지, 보육노동자인지 그 위상이 모호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정보육교사를 고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가정보육교사는 누구로부터 임금을 받는지, 시설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적용은 받는 것인지, 경력관리는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가정보육교사는 0세아 보육의 성격상 단기고용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자리로 보장되기 위한 제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4.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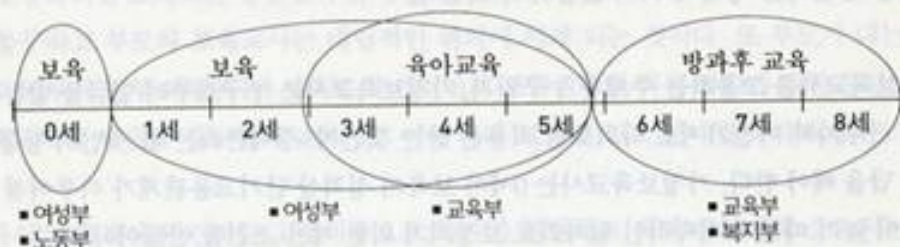
정부는 제도 시행이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 실태, 생활권역별 분포, 지역별 수요, 표준시설모형에 근거한 원가계산 및 아동별 지원 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리한 계획은 다시 수정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육아지원정책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보다 전문적이고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보살피기를 원한다.

이번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여 보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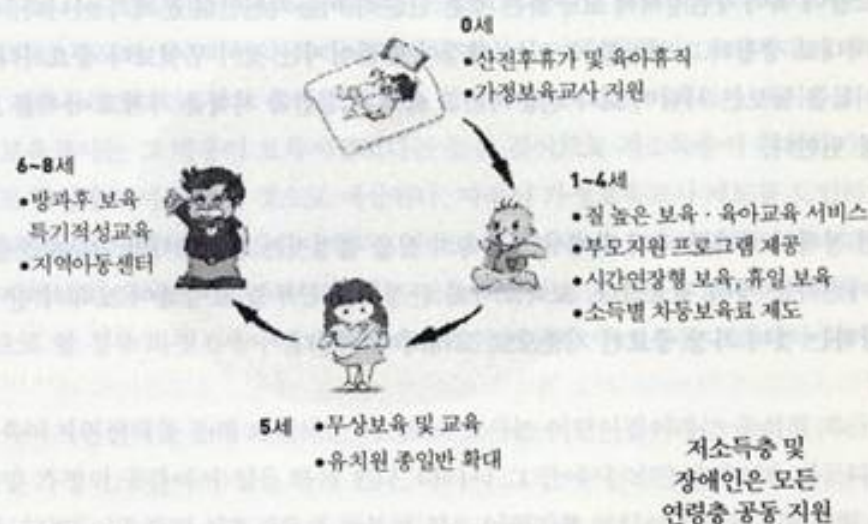
(정부발표자료 참조)

양육지원의 정책대상 설정: 0-8세



연령	인구	정책방향
0세	47만	가정에서의 육아
1~2세	105만	가정 또는 보육시설
3~4세	126만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5세	64만	교육기능 강화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6~8세	207만	방과 후 보육 및 특기적성교육

연령별 지원정책



영국보육교사의 하루

정희연

(Senior Nursery Nurse, Tudor Court Day Nursery, UK)

내가 사는 동네엔 작은 슈퍼마켓, 그보다 더 작은 우체국, 아주 오래된 교회(그 마당에 있는 묘지에서 친구와 난 무려 1600년대 후반의 비석도 발견하였었다), 그리고 학급 수가 전학년 합쳐 10개나 될까한 작은 학교(이 학교 건물 전면에도 1860년인가 지어졌다는 연대표시가 있다, 여기엔 아주 이런 오랜 건물들이 흔하다), 빌리지 홀(마을 회관이다, 여기서 마을축제도 열리고 각종 바자회나 행사들도 열리고 선거시엔 투표장소로도 이용된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다. 마을 끝 쪽에 있다. 건물은 아주 큰 개인 주택인데 마당은 아주 넓고 수영장에 놀이시설에 잔디에 아주 좋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방의 전면 유리창으로 끝없는 유채밭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집 한 채 없다. 아주 끝 쪽에 목장이 하나 아련히 보이는 거 말고는. 예전에 농담으로 하던 말들이 생각난다. "야, 우리 저기 어디 시골에 가서 어린이집하자" 뭐 그러던 기억들. 영국 시골이다. 내가 일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아이들의 연령은 0세에서(내가 일하기 시작한 뒤로 가장 어렸던 아기는 마이클로 4개월 조금 못되어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왔었다) 입학연령인 만5세까지이다. 건물은 두 개로 나뉘어져 메인빌딩엔 영아에서 만 3세까지의 아이들이 있는 방과 부엌, 사무실 등이 있고 별도의 건물엔 3~5세 아이들이 하루를 보낸다. 메인빌딩엔 위니더 푸 베이(6~7개월까지), 패딩턴 베이(8개월~1세), 루퍼트 베이(내가 있는 방, 1~2세), (2~3세), 이렇게 곰들의 이름이 붙은 아이들 방이 있다. 우린 그냥 큰방, 풀칠하는 방(상대적으로 가위질, 풀칠 등 미술활동을 많이 한다고 붙여진 별명), 중간방, 끝방 막 이렇게 부른다. 내방은 '큰 방'으로 불린다. 가장 큰 방이니까. 현재 14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 종일반으로 일주일 내내 오는 애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벤과 메건정도가 일주일 내내 오는 아이들이다. 가장 아기는 테이트로 14개월이고 나이 많은 그룹은 이제 25개월이 넘는 루크, 케서린, 네이산, 메건이 있다. 이 연령의 아이들에 있어 발달단계상 몇개월의 차이는 참 크다. 따라서 내가 주로 아이들

과 하는 활동들도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내방엔 나팔고 두명의 주니어 스태프가 더 있다. 하나는 불박이로 나와 함께 일하고 하나는 영아방중 하나와 내방 반반씩 도와준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오전오후 15분씩 있는 휴식시간을 커버해주는 파트타임어가 있다. 2급보육교사인 선은 현재 내년 여름에 끝나는 1급 보육교사 코스를 이수중이다. 일주일에 하루 켈리지에 가고 나머지는 풀타임으로 월급 받고 일한다. 루이즈는 1급인데 켈리지(일종의 전문대, 우리로 치면)와 유니버시티가 연계하여 학사증을 수여하는 2년짜리 아동교육전공 코스를 이수중이다. 루이즈도 하루는 학교에 나머지는 풀타임으로 일한다. 열방의 케이트도 1급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코스를 하고 있는데 켈리지가 아니고 정부가 인정한 일종의 교육단체에서 개설한 코스이다. 어세서(assessor)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교수가 개별적으로 지도를 한다. 학교에 가거나 하지 않고 어세서와 개별 접촉하여 과제도 받고 시험도 보고 한다. 이도 2년 코스이다. 그런데 학비는 모두 무료이다. 대학전까지는 전액 국가부담이다. 이렇게 보육교사가 되는 코스는 다양하다. 물론 이외에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놀랐던 점 중 하나는 교수나 어세서들이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지도 점검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짧게는 하나의 교육활동, 길게는 오전 혹은 오후 내내 학생들을 관찰하고 지도한다.

우리방의 하루일과는 오전 8시에 시작된다. 높은 의자(하이체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의 개별의자이다, 식당에 가면 어린이들용으로 높고 앞뒤가 막힌 의자들 보았을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이 의자들을 7-8개 접었다 폈다하는 거 일종의 중노동이다)를 내놓고 아이들 아침을 준다. 두 종류의 씨리얼(콘플레이크류의)과 버터를 바른 토스트이다. 아침을 먹이고 한편에선 전날 셋업을 해 놓고 간 놀잇감들과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시작한다. OFSTED라고 보육시설과 학교 등 모든 시설들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놀잇감들은 아이들 손이 닿는 곳에 비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또 어디 그런가? 책과 소프트 토이(봉제 인형류들), 몇가지 블럭류를 빼곤 다 어딘가 들어가 있다. 대신 공간은 아주 넓어 아이들이 실내에서도 충분히 뛰어 놀 수 있다. 보통은 3종류의 놀잇감들을 매일 저녁에 세팅을 해놓는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흥미정도에 따라 놀잇감들은 언제든지 교체된다. 말을 거의 하는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묻는다.

아홉시가 넘으면 뒷마당에 바깥놀이를 나간다. 마당엔 두군데의 놀이터가 있다. 하나는 주로 3-5세 아이들이 가는 나무로 된 미끄럼틀, 시소, 흔들다리 등 모험놀이 코스

가 있는 곳이고(원장은 이거 새로 만들어 놓고 돈 많이 들었다고 생색이 대단했다. 시설은 좋다. 그러나 그림의 떡이다, 안전을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거기 못간다.) 다른 하나는 우리들이 주로 가는 나무 울타리가 쳐진 작은 놀이터이다. 자전거, 자동차, 플레이 하우스, 공 등 아이들이 놀기엔 아주 좋다.

10시 간식시간 전에 신나는 음악을 틀고 하는 광란의(?) 신체활동 시간이 있다. 춤을 추기도 하고 구르기, 뛰기, 동물 흉내내기 등 몸을 움직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

아이들을 앉히고 이름카드를 이름 부르기를 한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손바닥만한게 사진과 이름을 써 넣어 이름카드를 만들었다. 각자 아이들 이름은 다른 색깔이다. 아이들은 처음엔 사진으로 색으로 혹은 이름의 길이로 자신의 이름들을 인지해나가는 것 같았다. 조금 지나서는 사진을 가리고 보여준다. 이제는 아이들이 통문자로 자신의 이름과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신기하게 구분한다. 한번도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읽어야 한다든지 알게 해줘야 한다든지 하는 목표로 이 활동을 한 적은 없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 친구들을 구분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은 놀이이다. 그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부수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유와 비스킷으로 간식시간이 있다. 동그란 비스킷일 땐 동그라미모양을 이야기한다. 우리방 아이들은 씨클과 스타, 하트, 스케어, 트라이앵글 등 기본 모양은 다 인지한다. 샌드위치를 먹을 땐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썰어 먹으며 놀고 비스킷은 씨클이고 반짝반짝 작은별 노래를 할땐 색이 다른 별모양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며 놀고 하다보니 아이들이 그 모양과 이름을 다 알아버렸다.

간식시간이 끝나면 씨클타임이라고 그 주일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교육활동이 있다. 예를 들면 이번주의 주제가 "색깔"이라하자. 월요일은 빨간색, 화요일은 파란색 이렇게 정해놓고 씨클타임에 그 색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뭐 그런 것이다. 빨간색의 놀잇감이나 생활주변의 물건들을 넣은 주머니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꺼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고 뭐 그런 것들. 빨간 사과를 먹어보고 빨간 꽃은 냄새 맡아보고 빨간 털장갑은 만져보고 그런 식으로 말이다. 색깔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게 다 이야기 될 수 있다. 빨간 신발로는 아이들 스스로 신발신어보고 벗어보게 하는 놀이, 냄새를 맡고 먹어보면서는 신체부위에 대한 이야기 등등.

답엔 노래시간이 있다. 처음엔 아이들 노래 몰라 애먹었다. 영국에 처음 와서 일년동안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리셉션 클래스(학교에 포함되나 0학년으로 유치원과 제도권 교육 1학년의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 일종의 준비학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었다. 거기 선생님이 추천해준 책을 사고 키보드를 사서는 혼자서 열심히 노래했다. 온지

얼마 안되어 어린이집에 면접시험을 본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간도 컸다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갔다. 면접 끝부분에 생각나는 아이들 동요를 불러보란다. 머리가 아득해지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다. 사실 영어노래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가 맞는 말이다. 당근 떨어졌다. "너무 떨어져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하고 얼버무렸었지만, 지금은 영국애들 노래 아주 잘한다. ('반짝 반짝 작은별' - 물론 영어로- 우리 아이들의 차트 넘버원 송이다) 빈플라스틱병으로 만든 각종 소리 나는 것들, 탬버린, 트라이앵글, 북등으로 아이들과 노래시간을 갖는다. 한국에서 가져간 소고가 있는데 인기 짱이다. 아이들이 항상 먼저 차지하려 작은 다툼이 일어난다. 가능하면 그 주일의 주제와 연관된 노래들을 찾아 부른다.

다음엔 이야기시간이다. 이주일에 한번씩 이동식 도서관이 온다. 새 책, 좋은 책들 많다. 노인들이나 우리 같은 시설들에서 애용한다. 잔뜩 새 책 빌려서 헌책 만들어(?) 돌려준다.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지역도서관에선 정기적으로 도서관 책을 세일한다. 아주 싸다. 그것도 잘 이용한다. 쓸만한 책들을 사다가 애들이 항상 볼 수 있게 꽂아 놓는다. 책도 그 주일의 주제와 연관된 책들을 빌린다. 책을 들고 읽어줄 땐 그대로 책 내용을 읽지 않고 막 뛰어넘기도 하고 약간 내용도 만들어 넣고 하여 읽어주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한다. 영어방에서 막 우리방으로 온 아이들은 오랜 시간 집중해서 못듣는다. 그런 애들은 그냥 놀게 놔둔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의를 가지고 이야기시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깐. 처음엔 주니어 스태프들이 아기들을 억지로 잡아서 앉히려 했었다. 회의시간에 잘 설명을 하여 이제는 안 그런다.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이 많은 그룹의 아이들은 몇 권씩 책을 읽어줘도 가만히 앉아 잘 듣는다. 특히 책에 있는 내용과는 무관해도 작은 부분들을 집어주면 "까르륵~"거리며 좋아들한다. 이야기시간이 끝나면 그 귀한(?) 도서관 새 책들을 가지고 놀게 한다. 물론 도끼눈(?)을 뜨고 책을 찢는 놈이 없나 감시한다(?). 간혹 아기들이 그런다. 그러나 몇 번이 지나면 자연스레 그런 행동은 멈춘다. 좀 나이 많은 놈들한테 묻는다. "누가 책을 고장냈냐, 물론 회연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좋은일 인거 같냐?" 하면 나이 많은 아이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그러면서 뻔같은 아이들은 은근히 아기들을 가리키며 "에이미가 그랬어" 한다. (사실 에이미 아니었는데)

그 시간이 끝나면 한쪽에선 다시 자유놀이가 시작되고 한쪽 코너에선 미술활동을 한다. 작은 책상과 의자 두어개를 놓고 소그룹으로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언제나 우르르 몰려와 함께 본다. 전체 아이들이 몰려왔을 때 빙 둘러 앉혀놓고 내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준다. 어제는 무당벌레를 만들었다. 종이에 빨간 페인트를 자유롭게 칠하게 하고 먼저 잘라 놓은 동그라미들을 그 위에 붙이게 한다. 아주 간단하

지만 해놓고 보면 그럴싸한 무당벌레다. 무당벌레 사진을 놓고 어디에 살며 다리는 몇 개고 뭐 그런 소소한 이야기도 한다. 언제나 색깔이나 모양에 대해서 일상중에 이야기한다. 산책을 나갈때 "빨간 꽃이 있다, 어디 있지?" "파란차가 오네 어디서 오는거지?" "초록색 잔디위로 걸어가보자." "큰 불력을 가져와봐." "긴 뱀이 동물상자에 있을텐데." 등등 앞애다 약간씩의 수식어들을 붙여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들을 따라하는 것 같다. 어휘력이 많이 좋아진다. 올리버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 "회연, 긴 뱀을 줘" 회연, 큰 풍선이 좋아" 풍선을 더 크게 붙여줘" 등등. 지난주엔 팝콘 트리를 만들었었다. 종이에 먼저 나무등치를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초록색 물감과 풀을 섞은 것을 자유롭게 칠하게 하였다. 그리고 팝콘을 그 위에 붙이게 하였다. 물론 다 같이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였다. 뱀이 물감 묻은 팝콘까지 먹겠다고 울며불며 끝내기는 하였었지만. 일주일에 한두번은 이젤에 그냥 큰 종이를 붙이고 프리페인팅을 하게 한다. 점심시간전엔 차분히 아이들은 앉게하고 퍼즐이나 줄에 나무로 된 여러가지 모양들을 꿰게하는 놀이등을 한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닭고 기저귀갈고 잘 준비를 한다. 오후 3시까지가 낮잠시간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2시 반전에 다 쉰다. 3시엔 물과 비스킷으로 간단한 스낵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후엔 저녁시간까지 자유놀이 시간이 한 시간 가량 있다. 애들의 상황에 따라 이야기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림카드를 가지고 놀거나 공놀이거나 신문지 놀이(신문지를 잘게 찢어 한 구석에 놓고 눈싸움처럼 아이들에게 던지게도 하고 그 속에서 놀게도 한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혹은 신문지로 막대를 만들어 풍선을 붙여 천정에 아이들 키높이로 달아놓고 치고 놀게 한다.)등도 한다.

4시전엔 티타임이라고 일종의 이른 저녁을 먹는다. 여기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든다.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가면 씻고 곧바로 자러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보통 8시 전에 다 잠자리에 드는 것 같다. 티타임이 끝나면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신발 신기고 집 에 갈 준비들을 한다. 그리고 시소나, 자전거, 큰 자동차등 큰 놀이감들을 꺼내 놓는다. 난 일일일지를 적는다. 뭐를 했고 뭐를 먹었고 기저귀가 더 필요하네 등등 집으로 갈 내용들이 담긴.

5시가 넘으면 아이들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내셔널 커리큘럼이라고 국가교육과정이 있다. 3세 이하는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은 그렇게 국가교육과정 따라하기를 원한다. 그게 꼭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느낌이 들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그 국가교육과정이란게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방 아이들의 연령엔 맞지 않는다는 게 내 건

해고 끝없는(?) 논쟁속에 드디어 원장을 설득하여(사실 내가 무시하고 사는 편이다) 난 내 방만의 교육계획안을 내 맘(?)대로 만들게 되었다. 다른 방의 스태프들이 처음에 그 걸 못마땅해하는거 알았지만 강 또 무시하였었다. "너들도 '내셔널 커리큘럼' 따르기 싫음 원장을 설득해내고 스스로들 만들어봐" 하고 말이다.

지금 내 폴더엔 거의 일년치 계획안들이 빼곡하다. 인터넷,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등 내가 조사하고 내가 만들었다. 어디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혹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검증받은 적 없다. 그러나 지난 일년 진행해본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건 내 스스로 확인하였다. 우리 아이들 연령에 맞는 내용들, 주로는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이렇게 요약되겠다. 언제나 아이들 상황과 흥미에 맞게 주제를 선택하려고 한다. 아무리 봄이지만 봄같지않게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된다면 계획안에 있는 봄이란 주제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면 안 한다. 아이들이 색에 관심을 보인다면 이미 지난달에 한번 했었다하더라도 그 주제로 한 번 더한다.

아이들과의 교육활동으로 내용을 청탁받았는데 사실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보낸 이메일 내용이 회미하여 뭘 어찌 써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나의 일과를 중심으로 써보았습니다.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이강선주 사무국장의 실수임을 여기서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하하하)

B5용지로 네장이라 하였었는데 A4로 다섯장이 넘어가니 용량도 초과하고 여기서 마무리해알 듯 싶습니다.



‘사과나무’를 심다

- 주민과 함께 만든 방과후교실 이야기 -

황 미 혜 · 명예회원

사진 · 관악주민연대 제공

후원금을 대신한 취재

헬스클럽에서 땀을 주욱 빼고 있던 중에 선주언니(본회 사무국장)의 전화를 받았다. 어디 취재를 가란다. 귀에 찌렁찌렁 울리는 음악소리에 가려 선주언니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생각해보고 전화할게."라고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다. 물론 생각을 해보기는커녕 까맣게 잊어버렸다.

머칠이 더 지나고 다시 선주언니의 전화를 받았다. 선주언니의 정리능력은 뛰어나다. 취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는데도 '그걸 그냥 원고로 쓰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여하튼 포괄적 보육에 대한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여기라는 이야기에 별 말도 못하고 글 쓰는 걸로나 후원금 대신 하자 싶어 그러마 하고 전화를 끊었다.

취재 가기로 약속된 날. 집에서 버스를 타고 전철역에 가서 다시 전철을 타고 조금 걸어 씩씩이 어린이집에 도착. 씩씩이 어린이집을 취재하느냐고? 천만에. 그 혼한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 빌릴 겸, 취재장소 약도도 얻어낼 겸 찌는 더위에 땀줄구두 신고 걸었다. 도착해보니 다들 바깥나들이를 가고 전에 보육교사회 사무국장을 했던 경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정신없이 점심 준비에 바쁘다. 그래도 아는 얼굴이 남아있어 다행이다. 디지털 카메라도 빌리고 약속장소까지 찾아가는 길도 알아냈다. 다시 버스를 타고 갔더니 고맙게도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횡단보도,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관악주민연대 사무실, 내가 취재 가기로 한 곳이다. 1시 좀 안되어서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애가 집에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취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 약속장소를 잘못 알고 있던 터에 씩씩이 어린이집에서 확인하느라 약간 지체했더니 금새 금쪽 같은 15분이 지났다.

3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자 우리 사무실보다 조금 넓어 보이는 공간에 여럿은 컴퓨터 앞에, 누구는 이른 점심 준비로 사무실 한 켠에 있는 조리대 앞에서 있다. 만나기로 약

속된 그이, 이명애 사무국장을 찾아 사무실 옆에 마련된, 온통 하얀 색이 칠해진 회의실에서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관악주민연대, 보육사랑모임, 사과나무...

사실 나는 관악구 주민들이 동참해서 만들었다는 '사과나무'라는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오라는 특명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은 관악주민연대라는 지역운동단체 사무국장이었다. 그리고 방과후시설을 만들기 위해 논의한 주체는 '보육사랑모임'이라는 소모임이다. 머리가 복잡하시다고? 관계인즉 이렇다. 관악주민연대가 보육사랑모임을 만들었고 보육사랑모임에 참여한 엄마들이 방과후시설을 제안하여 관악주민연대와 보육사랑모임이 함께 준비하여 일궈낸 것이 방과후시설 '사과나무'이다. 이제 좀 정리될 듯하지.

시간을 거슬러 거슬러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가 지구의 멸망을 예언했던 바로 그 해에 관악구에서는 커다란 술렁임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방울토마토 3개'라고 화자되던, 어린이집 비리사건이 드러난 일이 있었다. 당시 관악구에서 활동하던 여러 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하였고, 그런 류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관악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성과도 거머쥐었다.

그러나 보육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은 그때부터였다. 이후 또 발생할지 모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해당시설을 고발하는 식으로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보육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관악주민연대 안에서 술술 피어 오르더라. 보육은 아이가 있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던가. 마침 관계 맺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있고 해서 모임을 만든다는 것이 전혀 비현실적인 공상은 아니었다. 2001년 6월, 관악주민연대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한달 뒤쯤 드디어 1차 모임이 열리게 되었다.

엄마들의 내공으로 움직인다, 보육사랑모임

소모임 형태라라도 한번 해보자던 그 모임은 보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과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보육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한 달에 한 번 꼴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학부모들

관악주민연대
이명애 사무국장



보육사랑모임 일일주점

이렇게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나 소규모의 간담회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 대목에서 잠깐. 실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도 2002년도 봄에 보육사랑모임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경녀가 가기로 되어있던 거였으나 다른 일정 때문에 땀땀의 자격으로 당시 논란이 되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열

심히 수다 떨고 왔던 기억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떠오른다. 보육사랑모임이 언뜻 애길 들어서는 그냥 관악주민연대나 참여하는 보육교사들이 주도하고 엄마들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는" 모임 같지만, 한 달에 한번씩 꼬박꼬박 모여 보육에 대한 '학습'도 하고 강좌도 갖고 하다 보니 엄마들에게 쌓인 내공이 어디 우습게 볼 것이겠는가. 작년 가을과 올해 어린이날에는 보육사랑모임의 활동 홍보와 방과후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도 해봤고, 작년 11월에는 방과후시설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도 치러냈다. 그뿐인가. 지자체 선거 때엔 후보자들에게 보육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관악구 보육조례를 만들려고 맘도 홀려본 엄마들이다.

보육사랑모임에서 엄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 된다. 나머지 절반은 보육교사들과 관악주민연대를 포함한 여러 지역활동가들. 모임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전체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한단다. 캠페인이나 하루주점도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들이다. 이명애 사무국장의 말로는 본인들이(아마도 관악주민연대 또는 지역활동가들)를 지칭하는 것이라) 엄마들의 덕을 보는 편이라고 하니 엄마들의 참여도와 열정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하긴 뭐, 그렇게 되기까지 먼저 고민한 이들의 노력과 배려가 없었겠는가. 이내 이 사무국장의 입에서 엄마들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나온다.



10월 캠페인

엄마들, 드디어 일 내다

방과후시설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엄마들의 욕구

에서 출발했다. 이제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봐주니까 맘놓고 맡겼는데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엄마들을 계속 일을 해야 하고 아이들은 학원 몇 군대를 돌게 하거나 부모님들(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였다. 그래서 지금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처럼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방과후교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생각들이 입 밖으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관악주민연대에서는 보육사랑모임에 대해 아주 심도 깊게 고민하는 상황이 못되었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고민이나 대안이 서 있지 않았을 그때, 그걸 이끌어 간 것은 보육교사들이었다. 이 사무국장 왈,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하도록 건언해야 한다고 강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엄마들의 욕구는 있었고 그 욕구를 받아 안아야 한다는 고민이 지속되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과나무'는 시작되었다.

다행히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면서 작년 9월부터는 인건비를 지원 받아 보육사랑모임을 꾸준히 관리할 실무자를 따로 둘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전담 실무자가 있었기에 캠페인도, 하루주점도 가능했다.

사과나무의 씨앗을 심다

보육사랑모임에 참여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과나무'를 이용할 이들은 마당이 있는 집을 원했다. 아파트 아니면 빌라, 그도 아니면 연립주택이 딱딱딱 붙어있는 서울, 그것도 재개발로 그 어느 곳보다 더 주택밀집도가 높은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마당 있는 집을 찾아내기란 상당한 인내를 요하는 일이었음이 틀림없다. 두 달 정도 헤맨 끝에 올 2월 간신히 봉천동 현대시장 부근에 딱 알맞다고 여겨지는 집 하나를 발견했다. 근데 그리 넓지는 않다. 그래서 보육할 수 있는 최대인원을 20명으로 잡았다. 아이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마당도 있으니 엄마들의 바람대로 아이들이 채소도 심고 꽃도 심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으리라.

집을 구하고 이래저래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내 계획보다 늦게 개원을 하고 보니 홍보 시기를 놓쳐버렸다. 게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는 모임의 합의도 있었다. 지금 '사과나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단 3명. 방과후시설을 제안한 보육사랑모임 엄마들의 자녀들이다. 앞으로 얼마나 심한 재정적 압박을 겪을지 안 봐

도 비디오였다. 아니, 요즘은 안 봐도 디비디(DVD)라고 해야 하는 건가? 아이들은 학교 마친 후 '사과나무'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있을 수 있다.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오후간식만 제공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받는 보육료는 표준보육단가를 정확히 지킨다. 그나마 얻은 공간이 전세여서 다행이다. 전세금은 여기 저기 기금과 개인후원금으로 80% 정도 충당하고 나머지는 관악주민연대에서 총대를 매 해결했다.

굉장히 좋은 분을 선생님이 모셨지만 그 분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적어도 학원이나 기존 유사 시설들과는 달라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아이들이 몰려오고, 그래야 '사과나무'가 고사되는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을 게 아닌가. 이명애 사무국장은 사과나무의 차별성을 교육, 보육에 대한 철학에서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한다. 자기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 그러나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끼는 사람. '사과나무'를 심기 전에 엄마들과 합의한 내용이다. 척박한 한국교육의 현실에서, 경쟁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는 마음은 있으나 행동은 어려운, 아니 대부분은 성적표와 대학 이름에 가려 마음도 두기 힘든 포부이다. 그리고 그 것이야말로 '사과나무'의 무기라고 말하는 이들... 결국 그와 같은 보육철학에 공감하는 부모들이 그 자녀를 이 '사과나무'의 그늘 밑으로 보낼 터이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벌레 먹은 야채를 깨끗한 야채의 두 배 값을 주고 사먹게 되리라고 생각인들 했던가. '사과나무'는 분명 유기농법으로 키워질 것이다. 좋은 성적만을 유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과 자질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같이 발전하도록 키우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초나 벌레들과 공존 공생하는 유기농법과 다를 게 뭐 있으랴. 두고 보시라. 체벌이나 성적표로 기죽이며 암기와 단순반복, 요령 피우기라는 농약을 잔뜩 뿌려대는 일반 사교육의 터와는 분명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되리라.

참, 그래서 '사과나무'가 언제부터 문을 열었는지가 궁금하신가. 정확히 2004년 5월 29일에 개소식을 했다. 인터뷰를 한 날짜가 6월 9일이었으니 개소식을 한 지 이제 열흘 되었던 때에 나는 그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 꼭 좀 알아 갖고 오라는 전주 언니의 독촉에 길을 나선 거였다. 성급한 취재가 아니었느냐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긴 별 고민 없이 시키는 대로 집을 나선 내가 질문하고 대답을 받아 적는 일을 반복하는 와중에도 너무 빨리 취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사과나무 개소식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글을 정리하다 보니 의외로 재미있다. 까짓, 이제 막 씨앗을 심으면 또 어떤가. 그 씨앗을 어떻게 심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가고 싶은지를 듣는 것도 그와 같은 씨앗을 심고 싶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심 남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들을 나와 같은 엄마들이 해냈다는 사실로도 이 아줌마, 잠시 감격했다.

아름드리 사과나무를 꿈꾸며...

처음 사과나무를 심기로 하고 터를 고르고 씨를 심고 흙을 덮어줬을 때에는 보육사랑모임 엄마들과 함께였다. 그런데 막상 일을 벌이고 나니 아이들이 많지 않아 운영과 정에서도 엄마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 조금은 어렵다. 보육사랑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이 좀더 다양해진다면, 그리고 '사과나무'의 아이들도 좀더 늘어난다면 '사과나무' 부모모임을 만들어서 왜 이런 방과후시설이 지역사회 안에서 많이 필요한지, 어떻게 협력해서 아이들을 잘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린이 위생시설 조사활동도 해보고, 비교육적인 전자오락기 추방운동도 펼쳐보고 싶다는 것, 그렇게 함께 일을 해내고 관계를 쌓아가면서 사과나무 부모들도 보육사랑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과나무'를 심은 이들의 바람이다.

이 사무국장은 방과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방과후교실에 가서 학원 다니는 다른 아이들보다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될까봐 주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얼마나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가 자신들에게도 큰 고민이라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가며 할 수 있으면 진짜 독특한 방과후시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장담도 하면서.

물론 아직 특기교육에 대한 계획은 없다. 반면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그런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그야말로 지역사회 자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일테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주민(엄마)들의 자원봉사,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후원하도록 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다.

최대정원인 20명을 다 채운다 해도 어차피 마이너스(-)이다. 결국은 얼마나 지역사회와 부모들의 도움을 얻어 후원을 확보하든, 아님 돈의 문제를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든, 그런 것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운영의 내실을 채우며 오래 살아 버티기 위해서 끊임없이 쉼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중이라고 그이는 말했다. 제조제와 농약을 치지 않는 논과 밭의 생명들은 처음엔 쓰

러질 듯, 죽어버릴 듯 하다가도 이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자기 안에 숨겨진 힘을 드러내고 그렇게 더욱 강해진다. 부디 '사과나무'도 그 어떤 바람이나 가뭄에도 끄떡하지 않을 아름답고 나무로 성장해가기를, 나이트를 더해가기를.

'사과나무'가 없는 허허벌판으로 돌아가며

인터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가라는 절 급한 마음에 사무실을 나섰다. 손님으로 가서 귀한 시간을 맡겼 빼앗고도 빈 손으로 찾아갔던 게 영 마음에 걸려, 사무실 근처에는 가게가 없다는 이명애 사무국장의 뻔한 거짓말을 뒤로 하고 쉽게 가게 하나 찾아 참외를 사들고 다시 3층까지 쭉쭉대고 가서 "인터뷰한 값이에요"하고 건네주고 내려오니 마음이 좀 편하다.

땡벌에 버스를 기다렸다 올라타니 벌써 12시 반이 되어간다. 조금 있으면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다. 우리 집은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한시간을 가야 하고 그 전에 씩씩이 어린이집에 들어 디지털카메라도 반납해야 하는데...

그 순간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사과나무'와 같은 방과후시설이다. 작년에 보육교사회에서 일을 했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도 그랬고, 그 그전에 대학원 갈 준비를 하느라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특별한 일 없이 헬스클럽, 교회, 시장 갈 때만 집을 나설 뿐인 지금도 나에게는 '사과나무'가 필요하다. 아이의 일상에 맞춰 내 일상이 맞춰지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때론 괴롭다. 아직 혼자 집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9살, 집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놀라서 울기만 할 초등학교 2학년 짜리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아이 역시 내 일상에 자신의 생활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겠지. 엄마가 교회에 봉사하러 가는 날엔 아이는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교회 한 칸에서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걸림돌로 여기는 순간들이 가끔씩 튀어나온다. '일'을 하지 않는 나에게는 '사과나무'가 필요한 순간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리고 수업시간 내내 부동자세로 있어야 하는 내 딸아이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과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을 때가 많을텐데.

이 땅에 정말 '사과나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이 키우는 이들이 직접 심고 가꾸고, 그래서 그 어떤 나무보다 더 건실하고 튼튼하고 안전한 '사과나무'에 광고에서 송혜교가 들고 있는 그 사과보다 더 탐스런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잠깐! 관악주민연대는...

관악주민연대는 1995년 3월 창립되었다.

관악구 자체가 철거민 집단이주로 생겨난 신생구이다 보니 지역운동, 빈민운동에 뜻을 둔 이들이 많이 모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 90년대 초,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재개발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그간 동 단위로 이뤄졌던 활동을 구 단위로 넓히고 구 공동의 문제를 다루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 때 함께 활동하던 이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성한 것이 관악주민연대이다.

초기 몇 년간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싸움이 주된 활동이었지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지역상황에 맞춰 이제는 환경운동, 임대아파트 중심의 지역주민 조직화 활동, 실업자 지원활동, 주민자치활동, 그리고 보육문제에 사업을 집중하여 움직이고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공동체를 건설하고 소외된 계층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여 관악구를 참여와 진보를 지향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관악주민연대 사무실의 불은 꺼져 있다.

'사과나무' 에 거름 주기

이제 막 씨앗을 심어 떡잎을 내놓은 '사과나무' 를 아릅드리 나무로 만드는데 거름을 주시고픈 분들에게 '사과나무' 를 관리(?)하고 있는 관악주민연대의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후원계좌를 알려드리고 싶었으나 요즘은 CMS방식을 쓰다보니 계좌가 안 나와있네요.

관악주민연대/보육사랑모임(사과나무)

전화 02-875-3196

홈페이지 www.pska21.or.kr

돈도 좋고 물품도 좋습니다. 거름을 듬뿍 주세요. 직접 거름이 되어주셔도 좋겠지요.



우리 언니

김 정 애

부산자부회원

부산자부 그림책소모임

샬롯 졸로토 글 / 마사 알렉산더 그림

언어세상



지난 2월과 4월에 친정 엄마가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차례로 인공관절을 해 넣는 수술이었어요. 첫 번째 수술을 하고 한 달을 입원치료 하고, 퇴원해서 20일쯤 계시다가 다시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또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으셨지요.

얼른 치료를 끝내고 싶어 했던 엄마의 뜻대로 두 번의 수술을 연이어 한데다, 두 번째는 회복도 늦어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언니가 도맡아 간병을 했습니다. 언니가 엄마만큼, 아니 엄마보다 더 고생을 한다 싶더군요.

5월 어느 날, 모임이 있어 어린이 서점에 들렀다가 <우리 언니>를 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병원에 들어서 언니에게 책을 보여줬어요. 내가 엄마와 언니보다 더 피곤해 하며 침대에 올라가 엄마 옆에 누워있는 동안 언니가 책을 보았어요. 아무 말도 않고 책을 다 보고는 가만히 책장을 덮더군요. 언니는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연년생 아이를 출산하고서 언니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마음은 먹어도 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기도 하고, 몸이 아플 때 가서 밥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시장 갔다가 샀다며 건네주는 예들 옷도 냉큼 받아오고, 김치가 떨어졌다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언니 집에만 가면 나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져서 꿈쩍도 못하고 늘어진 채 언니가 팍팍 청소하고, 음식하고, 상 차리고, 설거지 하는 걸 보고만 있지요.

나는 언니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된 적이 있을까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책보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림 그리고, 글쓰기도 합니다. 작년까지 만났던 아이들과 올 해 새로 만나는 아



자연이 주는 즐거움
자연 속에서 놀아요.



학교에 갈 때
동생이 손을 잡고送我.

이들 중에는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별로 나뉘어서 생활하고, 연령별로도 생활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지낼 수도 있고 따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밥 먹을 때, 학교 오갈 때, 다녀와서 놀 때는 늘 서로를 볼 수 있지요.

부모가 떨어져 있거나, 안 계시거나 하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아이들은 잘 견뎌냅니다. 특히 동생들은 그래 보입니다. 동생들은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잘 울고, 잘 웃습니다.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냅니다. 어리광도 심하고요. 보통 가정집 아이들이라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건 큰 문제로 여겨지

겠지만 내가 가는 시설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니나 형들을 보면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큰 아이들은 얼굴 표정이 무겁습니다. 부모를 대신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아이들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저마다 그 작은 가슴 속에다 고통들을 꼭꼭 눌러 놓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생들이 거칠게나마 자기 감정들을 툭툭 털어내는 걸 다행이라고 여길 밖에는요.

제작년에 우리가 언뜻 “나는 다슬이 없으면 못살아요.”하고 속을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때가 2학년 때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다지 다정해 보이지 않던 유리가요. 미래는 미림이에게 정말 자상하지요. 힘도 세고 싸움 대장이지만 미림이한테는 아주 다정한 언니였지요. 올 해 엄마한테로 돌아간 소희에게 철현이 오빠는 또 어땠고요. 철현이는 나와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같이 활동한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저 멀리서 봐도 꼭 와서 인사를 했어요. 아무리 자주 가도 자기랑 관계없는 자원봉사자에게 꼬박꼬박 인사하는 4학년 남자아이는 흔치 않지요. 주로는 내가 다가가 아는 체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철현이는 왜 그렇게 꼭 인사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동생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

다. 요즘 만나는 성탁이, 성민이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라도 참 똑같이 생긴 쌍둥이입니다. 성민이는 좀 제맘대로입니다. 마음을 다해 뭘 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그래도 뭘든 뜻대로 안되면 투덜투덜 짜증을 내지요. 성탁이에게 주로 화풀이를 하는데 성탁이는 “아~ 왜?” 하면서도 다 참아줍니다. 성탁이가 성민이에게 진짜로 화를 내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가 형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는 눈치입니다.

설희는 여덟살입니다.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설희는 <우리 언니>를 보고 나서 설희가 동생 손을 잡고서 예쁘게 웃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썼어요.

내 동생이 너무 좋다.

내 동생은 여섯 살입니다.

동생은 너무 귀엽다.

내가 잘 보살펴 준다.

울 때 누나가

품에 안아준다.

누나가 언제나 계속

보살펴 줄게

현중아 사랑해.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동생들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책의 원래 제목은 <BIG SISTER AND LITTLE SISTER>이지만 <우리 언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한 사람도 언니에게 더 의미를 두게 되던 모양이지요? 나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참 많은 언니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언니들은 어떤 동생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덧붙이면, <우리 언니>는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럼도 여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고요. 남자 아이들도 막상 읽어주면 가만히 빠져들어 들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에 비해 남자아이들이 ‘관계’ 지향적이지 못하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높이 더 높이』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김 옥 희 · 서울지부 회원

날고 싶은 열망, 나도 어렸을 적 갈망했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꿈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꿈을 꿔왔을까, 하지만 꿈에서조차 조금 날다가 떨어지곤 해 그 갈망은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네 아이들』에서 이 『높이 더 높이』란 책을 접했을 때, 내 어릴 적에 대한 향수와 오랜 갈망이 해소되는 듯한 시원한 느낌이 들어 행복감에 물들었다. 그런데 이 책을 공짜(?)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6세 3명, 5세 7명이다) 먼저 새를 본다. 이 새가 까마귀다, 비둘기다 옥신각신 하다가 소년(가) 새를 보고 따라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아 이쿠!” 한다. 그 다음 장, 소년(가)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날개다!” 하고 소년(가)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날개다!” 하고 용케도 알아챈다. 소년(가) 손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한 아이는 “종이로 날개를 만드니까 그렇지~” 하고 말을 한다. 소년(가) 커다란 소포를 받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박인가?” 했는데, 아이들은 “알이야!”, “사탕이야!”, “아니야, 초코렛이야!”, “나도 먹고 싶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 소포를 먹은 뒤 아이가 천장을 걷고 공중을 제추넘기해 문 밖으로 날아가는 모습에 아이들은 “우와~” 하며 환호성을 지른다. 소년(가) 날아가고 엄마와 아빠가 안타까운 얼굴로 따라가는 모습과 정류장에 서있던 아저씨 모자를 건드려 아저씨가 화난 얼굴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는 몇몇 아이들은 “그러면 안돼!”, “엄마, 아빠가 슬퍼하겠다” 하고 소년을 나무란다. 이때쯤 되었을 때 한 아이는 책장을 넘겨보며 말한다. “글이 없어요? 계속 없네?” 하고 말하지만 눈은 그 다음 그림을 보고, 얼굴은 흥미에 가득 차 있다.

아이들이 가장 흥미진진해 하는 것은 이때부터다. 새를 관찰하는 아저씨와 소년의 쫓고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안돼!” “어머머!”를 연발한다. 아저씨가 기구까지 타고 가서 소년을 결국 잡았을 때, “어떻게~” 하던 아이들의 걱정스런 얼굴은 소년이 빠져나가 기구를 터뜨려 땅으로 내려가는 반전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소년은 무사

히 땅으로 내려오고 아저씨와도 화해하고 아빠와 엄마의 품에 안긴다. 이 장면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 아이들의 얼굴에서도 흐뭇함이 번진다. 이 책을 본 후 아이들의 느낌은 “날고싶다” 이다. “애는 좋겠다.” “나도, 나도” “나도 한번만 날고 집에 올까야,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 “맞아, 집이 제일 좋아” “나는 꿈에서 날고 집에 와서 계란 먹을래” “나도, 나도 계란”. 이러쿵저러쿵, 재잘거리며 아이들은 소르르 꿈나라로 떠난다. 꿈속에서 정말 날고 있을까?

국민 88% “만족스런 보육시설 없다”

2004/05/21

일반인의 88%와 보육전문가의 91.4%가 “주변에서 만족스러운 보육시설을 찾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54.3%와 전문가의 60.3%는 안심할만한 환경과 시설을 갖춘 보육시설의 부재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또 응답자 10명중 6~7명은 국가 보육시스템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있어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이고 교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일반인 700명과 전문가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서비스 조사에서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일반인의 35.7%, 전문가의 53.5%가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임금 보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현재 2세 미만은 5명, 2세는 7명, 3세 이상은 20명으로 설정된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가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도 일반인 집단에서는 30.7%, 전문가 집단에서 21.1%에 달했다. 일반인의 48.3%와 전문가의 40.9%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도입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평가항목에서도 보육시설장과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는 영유아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것(일반인의 46.3%, 전문가의 40.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동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능력 등을 익히는 것(일반인의 18.3%, 전문가의 20.1%)이 꼽혔다. 아동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 집단에서는 7.9%의 응답률로 우선 순위 가운데 5위, 전문가 집단에서는 11.9%로 3위로 밀렸다.

기업의 양육지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반인의 58.2%와 전문가의 63.4%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라고 응답했으며 뒤이어 노동시간의 탄력 운용(일반인 18.5%, 전문가 21.1%), 육아휴직급여 현실화(일반인 15.3%, 전문가 7.9%)가 제시됐다.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보육서비스의 종류를 묻은 결과,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현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제 등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4시간 보육의 경우에는 20% 정도만이 이용 의향을 보였다.

이 조사는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한국갤럽이 국정조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2~11일 전화면접과 E-메일 조사로 실시했다.

[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



옛이야기 속의 도깨비

민 경 아 · 전 지역사회학연구소 연합회 교육·조직간사

아주 어릴 때 어떤 책을 보았는데 거기에 있던 그림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걸 보면 심각한 기억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꽤나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흥부 놀부'였습니다. 잊혀지지 않은 그 그림은 놀부의 박에서 튀어나온 도깨비의 얼굴입니다. 눈이 하나였고 머리 위에 뿔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온 몸에는 털이 나 있고 무시무시한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 그랬는지 정말 무서운 얼굴이라 생각했고 못된 놀부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도깨비에 대한 생각은 그저 '무서운 괴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깨비가 나오는 그 많은 옛이야기에도 흥미를 갖지 못하고 그 외눈박이 괴물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어른이 된 후, 동화를 읽어야 하는 일이 생겨 여러 가지 종류의 동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위기철씨의 '사라지는 동화'를 그 때 읽었는데 거기에 도깨비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도깨비가 인간들이 버린 비닐 때문에 땅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깨비가 땅 속에서 나오지 못하니 어린이들이 도깨비가 나오는 동화를 믿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깨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만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닐을 버리지 않고 자연을 보호한다면 도깨비가 사람 세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작가의 생각이 신기했습니다. 약간 교훈적인 이야기이긴 했습니다만 이 동화를 읽고 도깨비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작가의 생각에 의하면 비닐 안 버리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도깨비가 땅 위로 나오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여름방학 독서교실의 주제를 도깨비로 잡으면서 도깨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그 동안 몰랐던 도깨비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봤던 그 무시무시한 얼굴의 정체도 알게 되었지요.

도깨비 박사로 알려진 김종대 선생님에 의하면 도깨비는 '뫼+에비'의 합성어로 '뫼'은 불과 씨를 의미하고 이는 풍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도깨비는 부를 가져다 주는

남자신으로 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여자의 형상을 한 도깨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니 도깨비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도깨비는 뿔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도깨비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덩치가 큼니다. 옷도 주로 사람과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외눈박이 뿔 달린 도깨비는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요괴인 '오니'의 모습입니다. 오니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로 부를 가져다주는 우리의 도깨비와는 완전히 다른 괴물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그 오니의 모습을 우리의 도깨비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일제 36년과 함께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어린이 문학에 대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제 능력에 넘치는 일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이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림책인 한병호 그림의 '도깨비 방망이'는 뿔 달린 도깨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도깨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뿔을 그렸을까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 우리에게 너무 깊이 박혀 있는 도깨비의 모습을 과격적으로 다르지 않게 그림으로써 그저 내용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의 도깨비가 나오면 아이들은 이야기 보다는 그림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지만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깨비는 사람과 같은 모습인 만큼 요괴인 오니보다는 훨씬 사람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속성이 있고 사람에게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어수룩하고 앞뒤 제지 없는 우직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때에 따라 사람에게 이로움이나 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장난을 치는 도깨비도 있습니다.

첫 글에서 이야기 했던 '정신없는 도깨비'를 읽고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정오 선생님이 정리하신 내용인데 도깨비의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이가 제 또래의 도깨비를 만납니다. 도깨비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는 박수를 두 번 짹 짹 칩니다. 아이에게 돈을 꾸는 도깨비는 다음 날에는 물론 계속 한 달 동안 꾸 돈을 갚으러 옵니다. 도깨비는 건망증이 심했기 때문이지요. 도깨비는 아이네 집에서 놀다가 방망이와 냄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 후 도깨비는 계속 나타나서 꾸 돈 주고 방망이 주고 냄비도 주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도 계속 주는 거지요. 아이는 이 많은 물건을 혼자 갖지 않고 이웃과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도깨비가 부르더랍니다. 공중에 떠서요. 엉엉 울면서요. 왜 우냐니까 벌 받으러 하늘나라에 가는데 너한테 쏜 돈도 못 갖고 어찌나 하면서 우는 겁니다.

참 재미있지요? 아이들이 도깨비 이야기 해 준다면 무서워하기부터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해 주면 이런 도깨비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도 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전에 도깨비 무섭증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입니다.

우리의 도깨비는 사람들의 생활 언저리에서 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바라지만 사람들은 도깨비를 배척하기도 하지요. 도깨비와 오래 사귀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종종 옛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생활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가끔은 도깨비 이야기가 무섭게 들리는 경우도 있지요.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앞에 가고 있던 사람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기에 화가 나서 머리로 들이 받았는데 아침에 보니 그것이 소나무였다는 이야기, 밤새 씨름을 하고 아침에 보니 빗자루가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나 도깨비 불을 보고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도깨비가 주로 나무나 나무를 재료로 하는 물건으로 표현되는 만큼 나무와 연관 있는 '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도깨비가 우리 옛이야기에 자주 나온다는 이유 하나로도 도깨비의 모습이나 성격, 특징을 제대로 찾아보고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옛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풍자를 곁들여 들려주는 좋은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도깨비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옛이야기의 맛을 알아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봅니다. 제가 아는 아이는 무슨 신, 무슨 신 하면서 줄줄 외우고 다니고 잘 모르는 저를 우습게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옛이야기나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갖는 환상적인 매력을 우리 이야기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옛이야기나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려는 노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기 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 읽어보았는데 '신발'을 매개로 하는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옛이야기나 건국신화와 비슷한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세상은 알 수 없는 환상적인 줄에 서로 얽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 저는 아이들도 우리 것을 잘 알고 그 바탕에서 이런 다양한 책들을 본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자유롭고 당당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들끼리 지내고 어울리는 신화가 아닌, 가끔씩 사람의 세상에도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는 어수룩한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들려주고 알린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이야기, 우리 도깨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쓰고 있나 지켜보고 있을 우리의 도깨비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이것으로 옛이야기 연재를 마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쓴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옛이야기를 생각하는 모임'이 많아지길 바라며 민경아 드림.

시흥시 어린이 해수욕장 개장

2004/06/16

경기도 시흥시는 16일 장곡동 갯골생태공원에 어린이 해수욕장을 개장했다. 해수욕장은 폐염전 지하 120m에서 뽑아 올린 청정 해수를 사용하며 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 등 3개의 풀장과 샤워장, 모래찜질장, 그늘막 등이 설치됐다. 또 주변에는 천일염 생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염전(1만㎡)과 소금창고(300㎡), 머드팩체험장, 맨발광장, 바다정원 등 각종 시설이 마련돼 있어 어린이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

시(市)는 풀장 이용객들에게 각종 튜브를 무료로 대여한다.

30만평 규모의 갯골생태공원은 경기만 유일의 수로와 내만(內灣) 갯벌을 가진 곳으로 지난 96년 정부의 천일염 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소금생산이 중단됐으며 갈게, 기수고동 등 저서동물과 해홍나물, 나문재 등 염생식물, 송어, 풀망둑 등 각종 어류와 조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031)310-2985

[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g33169@yna.co.kr]

준비된 나들이, 유아를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활동

윤 선 화 ·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보육시설에서는 유아들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기 위해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정해 즐겁고 들뜬 기분으로 나들이를 나서게 된다. 그러나 나들이에 따르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날이 최악의 날이 되지 않도록 보육시설과 학부모, 교사들의 세심한 주의와 사전예방교육이 중요하다.

나들이가 잦아지면 그에 따르는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즐거운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위해 보육시설과 교사들의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나들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미아사고가 가장 높으며,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사고, 동물원이나 식물원에서의 사고, 놀이기구 이용시 사고 등이다.

미아사고

먼저 소풍, 현장학습 등 나들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하나는 미아사고이다. 2002년 2,871명이었던 미아발생수가 2003년에는 3,20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아들은 주변세계에 호기심이 강하고 자기 의사대로 행동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미아사고 발생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이때까지 미아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고의 개연성은 누구나, 어느 교육기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들을 준비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사전에 유아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계획이 필요하며 현장에서는 감독교사들의 주의와 경계가 가장 중요하다.

미아예방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선 미아사고를 예방하려면

첫째 자신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 주소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이때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ID카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둘째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친구들과 헤어질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해 본다.

길을 잃었을 때 안전한 해결방법

- 울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 잃어버린 장소에 그대로 서서 기다린다.
-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경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 방송실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이야기 해 방송을 부탁한다. 마무리 활동으로 유아들과 함께 나들이 갈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정리하고 유아들이 숙지하도록 한다.

셋째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어른, 경찰관 등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당부한다.

넷째 어린 유아의 경우 길을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 옷 주머니 속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카드를 써서 집어 넣어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연락처는 노출시 위험하므로 반드시 옷의 안쪽에 부착시켜야 한다.

미아사고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나들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나들이에서도 많이 발생되므로 가정에 미아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도록 한다.

미아사고 예방에 대해 부모가 알아야 할 수칙

1. 자녀가 집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나들이 나서기 전에 확인한다.
2. 항상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닌다. 부모의 손에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옷이나 핸드백 줄을 잡고 다니도록 한다.
3. 길을 잃었을 때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도록 한다.

4. 큰 소리로 엄마나 아빠를 세 번 이상 부르도록 한다.
5. 공공장소에서 어린이를 찾아주는 장소를 미리 알려 준다.
6.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한다. 믿을 수 있는 어른은 직원, 경찰관, 어린이와 함께 있는 어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7. 자녀의 지문, 혈액형, 머리모습, 최근 사진, 치과 기록 등을 보관한다.
8. 너무 어린 자녀의 경우, 자녀의 옷 주머니 속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카드를 써서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준다.

차량사고

보육시설 통학버스를 이용해 나들이를 가는 시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학습, 야외활동 등 이동경로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기사에게 반드시 통학버스 운행 전에 지도 등을 이용하여 현장학습이나 야외활동을 가는 장소의 이동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먼 거리를 운행하거나 중간에 경유하는 곳이 많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나 경유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서 운행시간을 계산해야 하여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시간에 너무 무리하게 잡는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운전기사가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

1. 지도교사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으면 출발 전에 이야기하도록 한다.
2. 출발하기 전 유아들이 올바르게 앉았는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한다.
3. 급정차나 급격한 감속을 피하고 일정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나들이를 갈 때는 유아들이 들뜨기 쉽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유아들은 떠들거나 돌아다니는 등 여러 가지 행동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교사 모두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유아들에게 충분히 교통수단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주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유아가 알아두어야 할 교통수단 이용 안전수칙

⑤ 버스를 탈 때의 안전수칙

-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는 버스가 완전히 멈춘 다음 타고 내린다.
-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다.
- 버스에 타면 돌아다니거나 장난치지 않고 바로 자리에 앉는다.
-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이고서 앞을 바라보고 안전띠를 맨다.
- 차창 밖으로 얼굴이나 손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내밀지 않는다.
-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뒤쪽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 버스에 내린 후에는 차와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주변에 보도가 있다면 보도 위로 바로 올라가도록 한다.

⑥ 지하철을 탈 때의 안전수칙

- 지하철을 기다릴 때 안전선 뒤에 서서 기다린다.
- 뛰거나 장난하면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는 밑을 잘 본다.
- 지하철 문과 창문 사이, 문 옆에 손을 넣지 않는다.
- 지하철 안에 서 있을 때는 손잡이를 잡거나 어른들의 손을 잡는다.
- 지하철 안에서 뛰거나 돌아다니지 않는다.

동물원과 식물원

지난해 과천 서울대공원 아프리카물소 우리에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물소뿔에 받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외에도 동물에게 음식물을 주겠다고 철조망 사이로 손을 넣었다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식물원에서도 나뭇잎을 따서 입에 넣었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들이를 준비하는 보육시설에서 사전 예방교육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 유아들은 동물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동물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므로 동물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알려주도록 한다.

동·식물원 관람시 주의사항

1. 동물이나 식물은 장난감이 아니다.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하며 보고 즐기만 해야 한다.
2. 돌을 던지거나, 우리를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동물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동물 우리 위에 올라가거나 동물 우리를 넘어가지 않는다.
4. 우리 속에 손을 넣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5. 정해진 사료 외에는 먹을 것을 주어서는 안된다.
6. 동물원에 갈 때에는 빨강 등 강하고 자극적인 원색의 옷을 입지 않는다.
7. 식물원 내의 길은 좁고 복잡하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식물원에는 나무와 돌 등이 많아 넘어지면 상처가 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곤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봄철에는 벌에 물리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므로 벌에 물리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과 벌에 물렸을 때 행동에 대해 알려주도록 한다.

먼저 벌에 물리기 않기 위해서는

1. 벌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2. 벌이 가까이 오면 손이나 팔을 저어서 쫓지 않는다.
 3. 야외에 나갈 때는 긴바지, 긴소매의 옷을 입도록 한다.
 4. 벌이 좋아하는 단 음식은 조심해서 먹는다.
 5. 야외에 나갈 때는 향기가 많이 나는 로션은 바르지 않는다.
- 벌에 물렸을 때는 물린 곳을 손으로 함부로 만지지 않고 교사에게 알리도록 한다.

응급처치

나들이를 하다보면 다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나들이를 가기 전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상자를 준비하고 나들이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해 보도록 하자.

현장학습활동에서 가장 흔한 부상은 피부가 긁히거나 찢기는 상처이다. 피부가 찢어져서 피하지방층이 드러나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서 봉합해야 한다.

흔히 범하는 잘못된 치료법 중 하나는 아무 상처에나 항생제 계열의 연고를 바르는 것이다. 항생제 연고도 긁힌 상처에는 괜찮지만 찢어진 상처에는 해롭다. 상처가 생기면 상처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서 흙이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출혈 부위를 덮고 손으로 눌러 지혈을 한 후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두 번째로 많은 손상은 팔이나 다리 관절의 염좌나 탈구, 골절 등이다. 다친 후 팔·다리에 비정상적인 변형이 있거나 변형이 없더라도 심하게 붓고 고통을 호소하면 골절이 나 탈구를 의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형된 모양을 보면 펴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교정을 하다가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손상된 모양 그대로 골판지나 나무판을 덧대어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야외에서 벌에 물리는 사고다. 큰 땅벌에 쏘이면 저혈압과 호흡곤란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흔히 보는 꿀벌도 쏘이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벌에 쏘였을 경우 먼저 벌침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창백해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호흡곤란, 구토, 복통 등의 심한 과민성 반응을 보이면 즉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나들이 주의사항

보육시설에서 나들이를 가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나들이 장소에서의 활동계획, 인솔계획, 응급상황에 대비한 교사의 역할분담 등에 대해 회의시간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유아들에게 나들이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첫째, 선생님을 잘 따라서 걷는다.

둘째,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짝과 손을 잡고 다닌다.

셋째, 차가 다니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넷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한다.

다섯째, 차를 지키면서 이동하도록 한다.

여섯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는 창밖으로 얼굴이나 손을 내밀지 않고 안전선을 지켜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타도록 한다.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서는 나들이를 떠나기 전 유아들에게 안전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키고 교사 스스로도 점검,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씩씩이 아이들의 말! 말!! 말!!!

씩씩이 어린이집

까불지 마!

호정 이모와 민주가 자유놀이 시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민 주: 이모, 난 둘째예요.

이 모: 난 셋째인데.

민 주: (잠시 생각하더니) 호정이모 까불지마!

내가 둘째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요.

이 모: 헉!

동상의 진실(?)

씩씩이는 종종 동네의 성당으로 나들이 나갑니다. 성당에는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서있고, 어린 양은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덮고 앉아 있는 동상이 있다. 성당으로 산책 간 3월 어느 날,

소 연: (예수님을 가리키며) 아이씨! (양을 가리키며) 멍멍!

옆에서 양을 한참 지켜보던 종모

종 모: 양이 아저씨 이불을 덮었네.

나도 여자랍니다!

박소연은 머리카락이 잘 자라지 않아 항상 짧은 머리이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소연이는 남자아이인 줄 안다. 요즘엔 치마도 자주 입고 오고, 머리핀도 종종 하고 씩씩이에 온다. 하루는 하얀색 블라우스에 빨강 조끼를 입고 검은색 7부 레이스 달린 바지를 입고 씩씩이에 들어왔다.

이 모: (반가워) 어서와 소연아~

선 우: 소연이 왕자님 같다.

이 모: 오늘 소연이 옷 예쁘게 입고 왔네.

선 우: (놀란 듯이) 소연이가 여자예요?

성균이도 사람이야! (인권교육 1탄)

나들이를 다녀온 후 아이들이 큰방에 동그랗게 앉아 쉬면서 막대 사탕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이모가 막대 사탕을 성균이만 빼고 씩씩이의 모든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아이들이 성균이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앉아서 성균이에게 먹어보겠냐고 물어 보기만 하고 보여줬다가 감추었다가를 반복하며 놀리고 있었다.

그 때, 소연이가 큰소리로

소 연: 성균이도 사람이야!

왜 사탕을 가지고 그래!

사오정 (인권교육 2탄)

5월 한달은 오전 활동으로 인권교육 집중의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후 그 위에 잡지에서 오린 것들을 붙이는 작업을 할 때였다. 우선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각 팀별로 한명이 나와 잡지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 모: 다 그린 팀은 나와서 잡지를 가져가.

각 팀별로 나와 아이들이 잡지를 가져가고 있었다.

성 은: (이모 앞으로 나오더니) 이모! 잡채주세요.

이 모: 푸하하 (잡지를 잡채로...)

생활의 발견(?)

오전에 관악산에서 진달래꽃을 따온 오후 간식시간. 아이들과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화전을 만들고 이모는 그걸 지지고 있었다. 휴대용 가스렌지 근처에 앉아있던 윤형이(아시죠? 3월초만 해도 별로 말이 없었던 4살 그 윤형이입니다.)는 다른 아이가 가까이 오려하자 한마디합니다.

"뜨구와!!"

농장나들이를 가서 발에다 물주고 우리도 천막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지요. 21 짜리 물병을 든 윤형이가

"무그와!!"

"뜨구와"는 뜨거위의, "무그와"는 무거위의 전라도 사투리로 윤형이의 부모님은 전라도가 고향입니다. 평소 아이 언어교육상 표준말을 쓰라고 윤형이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교사의 적응기

이 승 회 · 광주전남지부 회원

선주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받으란다. 혹시?

나의 예감은 맞아 떨어지고 “신혼재미는 어때요? 들잖이 좋으시다면서요” 카랑카랑 한 소리로 선생님 님이 아니라 이번호에-, 아이들과의-

그 다음부터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머리속은 복잡하기 시작한다 못한다고 말해 라고 뇌에서 순간 전파는 보내는데 그만 ‘네’ 라고 대답하고 나서부터 고민은 시작되었다.

6월 15일까지 보내면 된다고- 그때까지는 하겠지 스스로 위로도 해보지만 숙제에 쫓기다 보니 아이를 보다가, 일하다, 잠들기 전까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이래 저래 쓰러져가는 감성도 잡아보기도 하고 글이 익어 나오기를 하루 또 하루 기다렸지만, 신은 공평한가보다 나에게 글쓰는 재주까지는 주시지 않는구나! 탄식!

안녕하세요

우리반 막내 하연이, 기어 다닐려고 애쓰는 귀여운 은채, 침대공주 영우, 개그맨 승주, 별명도 많은 껌딱지 장현이. 이렇게 함께 크는 뽕뽕이반(생후3개월~12개월) 오남매 엄마입니다.

5-6년 만에 맡은 반이라 여기에서 영 저기에서 영 똥쌌다 영 배고프다 영 놀아달라 영 잠온다 영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고 갈광질광 몸은 천금 만큼 몸을 끌고 처음 한달은 그렇게 그렇게 지내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게 영아의 일상 생활은 늘 분주한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지도 적용되어 가나 봐요. 쿵쿵 똥 쌌군, 웁 지금 우유 먹을 시간이나, 영 자자 또 쌌어...안아달라고 그래그래. 요매 이쁜거

‘원장하다가 교사 하기가 쉽지는 않은디 그래도 너는 대단 해냐 라는 박여사(나는 이렇게 부른다 = 박말신 선생 뽕뽕이반 또 한명의 엄마)의 격려속에 여전히 잘난 체 하면서, 짹짹 해주는 은채 때문에 웅얼이하는 하연이, 유모차에 몸을 실어 싱싱다니는 곱순이 영우, 이제는 혼자 형아반을 기웃거리는 장현이 승주 때문에 생활허요

점심먹는 시간도 없고 간식 먹을 시간도 없다고 투덜거리며 교사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등 근무 시간이 길다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나를 보면서 두 골방 노인네 (박여사와 나) 그래도 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 얼마나 고맙고 즐거운 일이나며 스스로 위로하며 크게 웃어 봅니다.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 병원’ 문열어

2004/06/17

남·북 함께 지어...콩우유 공장도 들어서

남북이 함께 세운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병원’이 17일 평양 동대원구역 새살림동에 문을 열었다.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이사장 권근술)는 아예 앞서 14일 북쪽 민족화해협력단연합회의 김성일 부회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남쪽에서는 초·중학생 11명을 비롯해 각계의 어깨동무 후원회원 등 97명이 인천~평양 직항 전세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했다. 어린이 합창단 ‘리틀엔젤스’가 1998년 공연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순수한 민간 차원의 어린이 평양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근술 이사장은 북쪽이 베푼 환영만찬에서 “남쪽 어린이들을 평양에 초청해 준 데 대한 화답의 표시로 8월15일에 북의 어린이를 남으로 초청하려고 한다”고 말해, 북쪽 어린이들의 교환 방문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병원은 세 층 건물(건평 900평)에 30병상의 입원실을 갖추었으며, 소아과의사 넷, 치과의사 둘, 간호사와 치위생사 9명 등이 하루 100명 이상의 외래환자를 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바로 옆에는 400평 규모의 두 층짜리 콩우유 생산공장이 함께 들어섰다.

어린이병원은 설사 및 치과 진료실과 놀이방, 연구실 등을 갖췄다. 북쪽 어린이들의 사망 원인 1위인 설사병을 치료하고,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들의 증상 및 원인을 규명하는 일을 할 예정이다. 어깨동무는 병원 안에 설치될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 실험설비와 시약을 지원해 치료제 및 식품 개발을 도울 계획이다.

콩우유 공장에서 나오는 콩우유는 평양 및 전국 산간지역 산원, 육아원, 탁아소의 유아와 어린이 3500명에게 매일 2~5봉지씩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어깨동무는 이 공장의 원료도 지원한다.

어깨동무는 2002년 2월 착공해 2년4개월 만에 준공된 이 병원과 공장에 지금까지 35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건축 전문가와 의료진 등 연인원 78명이 18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병원 건립에 참여했다.

이번 방북단에는 변형을 한겨레문화재단 이사장과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홍창희 서울대 명예교수, 소설가 조정래씨, 조규향 방송통신대 총장, 임현진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한겨레신문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상구와 송이에게 삼촌으로 돌아온 상현이와의 하루

주 로 미 · 명예회원

상현이가 상대원 고개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나니 나보다도 상구가 더 신났다. 상구가 먼저 신발 신고 마중 나가고 나는 송이를 챙겨 유모차에 태워서 뒤쫓아 나가니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온다. 참 오랜만에 보는데도 상현이는 여전히 예전이다. 내가 성남으로 이사와서 우리 집에 온 첫 손님인 셈이다.

상현이는 내가 꽃동네 놀이방에서 일했을 때 자원활동가였다. 그때도 아이들에게 인기짱이었는데 여전히 내 새끼에게 마저도 인기만점이다. 10년을 훌쩍 넘어서 상현이도 나도 아줌마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상현이는 삼촌으로 불리며 상구와 송이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린 상구와 송이를 데리고 삶은 감자와 술안주로 먹다 남긴 아몬드들을 들고 씬치공원으로 갔다. 너무도 알뜰하게 만들어진 산책로를 지나 작은 놀이터에 도착하자마자 상현이는 상구를 데리고 배구놀이를 하고 있었다. 승부욕이 강한 상구는 게임이나 경기를 해서 지면 너무도 속상해하고 급기야는 울기까지 하는데 이상하게도 상현이하고 할 때면 거친 승부욕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놀이든 상현이와 함께 하고 나면 즐거워하고 뿌듯해 한다. 어른이라고 억지로 이끌지 않고 그렇다고 봐주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그럴까? 상구가 상현이 삼촌을 기다리고, 오면은 자고 가길 바라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예전에 자랄 때 그랬지만 내 자식을 대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되면서 상현이한테 배울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아이들을 대하는 상현이의 태도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듯 하다.

이젠 유모차 타는 것도 싫어하고 제 발로 걸어다니고 싶어하는 송이가 제 물을 만나듯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지천으로 자란 토끼풀 사이를 헤집으면서 말이다. 송이 엉덩이를 뒤쫓아 다니다가 그만 들고 온 아몬드들을 모래바닥에 엎고 말았다. 어떻게 골라 보려다 뽕알개 묻은 먼지를 어찌질 못하겠고 또 한편으론 더럽고 귀찮은 생각이 뒤범벅

이 되어 그냥 내버려두었다. 그렇게 방치해두고 놓고있는데 아이 하나가 열심히 그 아몬드를 주어서 먼지를 털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까먹는 모습이 보였다. 이곳에 아이들과 바깥놀이 할 때마다 본 낯익은 아이였다. 초등학교 3학년인 그 남자아이는 딱 보기에도 결손가정 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이였다. 몇 마디 말을 시켜도 엉뚱한 대답을 해냈고, 이미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서 인지 주위를 빙빙 돌다가도 훌쩍 어디론가 가 버리곤 했었다.

잠시 그 아이에 대한 짧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동안 그 애는 떨어진 아몬드를 모두 주어서 먹어치운 상태였다.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 전에 왜 그리도 부끄러워지는지... 상현이와 상구가 노는 모습이 재밌어 보였던지 그 아이는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어떻게든 자기 방식대로 끼어 들고 싶어했다. 아주 어수선했다.

어둑해지면서 가로등에 불이 희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린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 동네 한복판을 가로질러 내려왔다. 뻑뻑이 들어선 성냥꽂 집들과 비좁은 골목길에 늘어선 이리 저리한 것들을 지나쳐오면 사람들로 북적대는 길로 빠져나오게 된다. "누나! 꼭 봉천동 같네요." 상현이 말대로 가난한 동네의 모습은 어디나 비슷한 구석이 많다. 채식을 하는 상현이를 위해 사농은 상추에다 토마토와 열무김치로 저녁밥을 먹은 후 차를 마시며 상현이는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

"누나! 누나네 식구가 살기엔 집이 너무 큰데요. 낭비 아녜요?"

"그래! 어찌다보니까 이렇게 됐어..."

순간 부끄러운 생각에 말문이 막혔다. 정말 어찌다 이렇게 과한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안엔 나의 허영이 도사렸던 게 분명하다. 내가 가난한 동네에 와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 자체가 허영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일침을 가하고 있었다. 내 안에 무엇을 정리 해내야 될지 상구와 송이에게 무엇을 건네 줘야할지 첫 질문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내 자식에게 멋진 삼촌으로 다시 돌아와 준 상현이를 보면서 아이는 부모만으로는 잘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간다. 어느 나라의 속담이더라?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늘 난 상구 키보다 조금 작아 보인 그 초등학교 3학년 짜리 녀석과 상현이에게서 내 아이를 어느 자리에 놓고 키워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자고 가길 바랬는데 외박은 절대 안 하기로 했다면 밤11시가 넘었는데도 집으로 가는 상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상구와 송이에게 좋은 삼촌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두둑한 밑천을 갖춘 듯 든든해진다.

1년을 뒤돌아 보며...

오후 늦게 한국보육교사회 중앙사무실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또 생각을 했지만 떠오르는 생각이 없었지요. 한 5분 정도 통화를 했나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에 전 기절을 할 뻔 했습니다. 절 기절시킬뻔한(?) 대화의 내용은 우리네아이들 새내기인사에 글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숨을 푹푹푹— 쉬면서 저는 '못해요' 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결국 자신은 없지만 짧은 시간에 머리를 굴려서 일단 쓰기로 했습니다.

새쌍둥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한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 뒤늦게 시작한 보육교사란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보낸 시간들이었지요.(보육교사회 회원 가입을 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네요)

문득 면접 보던 날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 느낌은 처음 보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선가 낯익은 분들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면접을 거쳐 채용이 확정된 후 첫 출근을 하면서 아이들과 신나게 일한 기억들...

초임 교사라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변 선생님들의 많은 위로와 지지가 교사로 굳건히 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옆에 계시기에 부족하나마 제가 아이들 옆에서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1년이란 시간은 짧고도 길더군요... 아이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네요.

아이들과 재미있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맘은 그런데 몸이 영— 말을 들어주지 않네요. 4월부터 시작한 발도르프 인형만들기도 다음주에 끝나는데 비록 초급 과정이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자기가 만든 인형을 보고 모두 한마디씩 하죠. 요즘은 중급, 고급도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모두들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저 역시 그렇고요.

6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기말시험이 있어서 시간이 넘 부족해요.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벌써 기말시험을 봅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주경야독하러니 정말 정말 힘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보육교사의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감기는 매일 매일 달고 살고, 피곤하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해 항상 피곤한 보육교사들의 일상. 보육교사의 건강은 보육교사만의 건강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텐데... 이땅의 모든 어른들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만나고 싶은 그녀, 그 이름 손 수정!

이 순 · 인천지부 회원

일명 기린 선생님은 예술에서 꼬박 5년을 일하고 그만둔 중견 보육교사였다.

그녀를 떠올리면 준수한 외모와 수용적인 성격, 조곤 조곤 말하는 세심한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또한 실속 있는 면도 있다.

참으로 아까운 그녀, 공들여 키웠는데(?) 그만 결혼과 함께 예술을 떠난 그녀!

그녀를 만났다.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내 숨은 의도를 감추고 한참을 이야기 하다가 드디어 말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사진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인터뷰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좋다! 좋아요, 더 물어보세요.

우리네 아이들에 소식을 실는다고 하니, 그녀는 좋아했다. 보육교사회 식구들에 대한 기억들이 좋고, 보고 싶기도 하고, 존경스럽다고 했다.

교사로 있을 땐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인생에서 많은 경험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였고,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예술에서의 생

활은 골고루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해보았기에 후회 없이 보낸 것 같다고. 보육교사회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

선생님들이 일할 것을 권할 때 기꺼이 받아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했다. 예술에서 6년간의 사회생활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충분히 해보았기에 아쉬움이 없다고 한다.



지금 생활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일을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결혼해서 처음엔 시댁의 어른들과 힘들었는데, 지금은 분가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아이와 남편하고는 잘 지낸다. 아직까지는 더 쉬고 싶고, 성격상 아이 키우고 살림 하면서 사회생활까지 다 못할 것 같고, 남편도 반대한다고. 보육교사로 지낸 세월이 동기를 키우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렇지만 교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망설여진다. 그냥 보육교사회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그럼 보육교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글쎄요~ 교사를 활동가로 키워가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할까, 하지만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알기에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잘 되었으면 하구요, 어쨌든 존경스러워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 이 동네 참 좋다~ 산 밑에 뼈국이, 소떡새가 우는 밤 밤새는 줄 모르겠네...

우리네 아이들 덕분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인천지부 교사들의 이야기도 하다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만남이었다.

사실은 수정이 선생님이 결혼해서 의정부에 살다가 작년 8월쯤에 부평으로 이사 왔는데, 놀러 간다고 버르고 버르다가 이제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13년의 세월동안 많은 아이들, 학부모, 선생님들이 다녀갔다는 생각이 들며 세삼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보고 싶어졌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동안 담아 놓았던 한마디.

"선생님을 열심히 키웠는데, 용케 빠져나갔어"

우리는 동시에 ㅎㅎㅎ...ㅋㅋㅋ

맛있는 족발이 있었기에 더 즐거운 만남이었지요.

기린 선생님에게 행복을 나누는 행복한 삶이 기다리길 바라면서...

보육교사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쯤인가?

[함내라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지난 호 보육교사 건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생생 채팅이 이어집니다.

이번 채팅은

[함내라 보육교사] 꼭지에 보육교사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기운이 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넷의 카페에서 지난 6월1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보육교사 수다방을 열어놓고 찾아오는 보육교사들과 생생 채팅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보육교사들 얼마나 서로가 만나기 힘들었는지 쏟아지는 붓물처럼 이야기는 끝도 없었고, 그 사이에 우리의 주제는 어디로 멀리 가버렸지요.

그치만, 그날의 생생한 이야기들은 우리 보육교사들이 지금 어디쯤에 서있는지를 정말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인 이야기는 무려 78쪽에 달했지만, 몇 가지 주제로 묶어보았습니다.

그날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각자 받고 있는 월급에서부터 승급교육에 대한 정보교환과 아이를 돌보면서 속상했던 이야기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채팅이라는 한정된 환경이었지만, 다음날 출근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아쉬워하며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세요.

업무상 과실? 소명의 기회는...

이야기 하나

교실에 어른은 나 혼자 뿐인데..

Z 작년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5세반 담임이 휴가를 가서 제가 일주일을 맡아주었는데 외부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원 앞에서 아이가 넘어졌어요. 코피가 났더랬는데, 일단 급한 대로 아이보고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아이가 화장실에서 씻는데...엄마가 본거예요. 식당이 지하였고 급한대로 1층으로 가라 했는데 교실이 있는 3층까지 혼자 올라 간거예요. 전 그 아이들 간식 주고 있었구요. 근데 그 사이 엄마가 와서 아이가 피를 흘리며 혼자 서있다고.. 그리고 주말동안 이불이 피로 젖었다고 하면서 월요일 원장을 찾아와서 한바탕 한 모양이에요

G 코피로요?

Z 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코피를 자주 쏟던 애래요. 상황이 안 좋았죠.

G 그랬네요..

Z 그래서 저 시말서 쓰고요

이야기 둘

아이도 나도 날 변명해 주진 못한다.

S 저는 가장 황당했던 일이 있는데여 엄마가 열이 받아서 왔더라구여. 그래서 왜 그러냐구 했더니만, 아이가 두 손을 앞으로 내민다구. 그걸 따지려구 왔더라 구여.

G 아이가 두 손을 앞으로 내민다구요?

S 어른한테 뭘 받을 때는 꼭 두 손으로 받으라구 가르쳤더니만

G 근데 그게 왜?

S 그걸 애들 손바닥을 때리는 거 아니냐구

G 아이가 몇 살이었는데요?

S 4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울었어여. 그랬더니 담날 미안하다구하면서 애덜 나눠주라구 5천원짜리 사탕 한 봉지를 보냈더라구여.

G 아이가 말을 할 수 없었겠네요... 정말 속상했겠다.

S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걸 보구 원장이나 원감이 하는 말.... 엄마한테 고맙

게 잘 받았다고 전화해 주 라구 하더라구여. 어이가 없어서... 내 자존심이 그
깃 사탕 한 봉지 값처럼 보이냐구 따졌져. 그리곤 전화 안했지만.....

내 맘을 아프게 하는 아이- 내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이야기 셋

s 저는 엄마한테 맞아서 온몸에 멍든 애두 잇었는데. 정말 그때는 불쌍해서 맨
날 울었어여. 그 엄마랑 나중에는 싸웠어여 종강 날... 그렇게 애를 만신창이
를 만들어놓구서는. 아무렴 선생이란 사람보다 엄 마가 애를 덜 사랑하겠냐
구 막말까지 하면서 그러는덴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여.

그애 야그할라면 정말 기가막혀여 4살이 오줌 잘 싸잖아여. 그 엄마가 그런
꼴은 못보는 사람이에여. 그러니 그애가 오줌을 싸면 다른 옷을 입구 집에 가
잖아여. 그럼 그날은 그 애 매 맞는 날이에여. 하두 그렇게 지내지니깐 애가
눈치만 보면서 팬티에 오줌 한 방울만 묻어두 죽을라구해여 애가. 거의 정신
나간 애처럼 막-- 우는데 정말 대책 안서져!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벗기구 다
른 옷을 입혀주면 다른 거 안 입는다구 막 또 울어여.

g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런건가요?

s 다른 거 입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깐.... 그래서 다른 옷 입었다가 집에 갈 때
다시 원래 옷을 입혀 준다구 제가 몇 번을 달래서 겨우 입히곤 했었거든여.
그렇게 애한테 신경쓰구 했는덴. 종강날 엄마가 너무하더라구여. 그래서 화
를 낸건 아니구 엄마가 모르면 좀 알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
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무슨 4살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구 그게
말이 되냐구 오히려 저한테 머라구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여.

g 종강 전에 이야기하실 기회는 없었어요?

s 맨날 야그했져. 오줌은 더 큰애들두 싸니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구. 그 엄마 어떤말두 이해 안하러구 하구여

g 답에 집에서 맞거나..그런데 있으면 꼭 신고하세요. 아동학대센터에 하시는
거예요.

s 그래두 되는건가여.

g 보육교사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애 발견못해요.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s 그렇게 되면 우선 원장이 머라구 할거에염

k 원에 파격이라 시러라 할꺼죠..

s 그런일루 원이 입에 오르내리는 걸 싫어하져. 다행이 그애 제가 일년 덴구 있
으면서 많이 밝아졌어여 그걸루 그냥 보람을 찾아야져. 신고하면.... 과연 학
부모나 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교사를 좋게 볼런쥬

참 귀한 일을 하는 내가 받는 사회적 대우는....

이야기 넷

월급? 최저생계비?

g 참 귀한 일을 하는건데.. 왜 그리 천한 대우를 받는지..

s 이걸 평생 직업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여

g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구요. 우리는 미래를 키우는 거라구.

s 글썽여....솔직히 말하면 미래란 게 있을까여?

g 멋진 말이긴 한데.. 생존의 문제는 해결해야겠지요.

s 여기서 좋아질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 갈등되여--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안 좋은 조건이구

w 여러분은 실례가 안 된다면 월급 어느 정도 받으세요? 여긴 너무 짜요...ㅠㅠ

t 여기도 짜요 w님은 몇 년 됐나요?

w 전 좀 오래 됐어요. 5년이 넘어가죠

t 아- 그래용, 전 초임이거든요.. 거기 초임은 얼마 받아요?

w 여긴 50부터 시작해요. 거기는요?

t 네... ㅜㅜ 진짜요?? 우와- 자격증 있는데도요?

m 여기도 그런데...

t 여기는 70이 넘어야 치우개선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70은 넘어요..

s 요즘은 보통 봉급이 얼마나 되냐여? 제가 3년 정도 쉬었거던여

z 저는 2000년도에. 처음 3개월은 4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55만원 받았어요.

k 저도 처음엔 65부터 시작 했어여... ㅜㅜ 치우개선비도 안주고 사대보험도 없
었어요.

s 처음에 55만원을 받았다구여? -- 너무하네
 k 뉴스에서 그렇게 보육시설이 어찌타 저찌타 하면서 보육교사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해주지 않고
 g 참 세상에 해도 너무 했다.
 m 전2000년 가을부터 일했는데 48만원 받았는데... 미술학원에서요
 k 저희들 생활수준은 거의 하위층 아닌가요?
 g 마자요..그건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q 동감입니다..
 z 저 구립으로 옮기고 나서는 월급이 딱 두 배로 뛰었더랬어요.
 s 구립은 얼마나 하나여? 많이 주저?
 z 1호봉이 116만원정도인데요
 k 허걱
 q 와-----
 z 실수령액은 110정도 되어요
 s 와우---

이야기 다섯

4대 보험은 운 좋으면 든다.

u 대구만 그런가? 민간어린이집에선 보험안들어주나요? 대부분 안들어줘서 리....
 m 원장샘마다 다르던데요
 g 고용보험은 꼭 들어야하는데..
 u 그렇죠? 고용보험은 안들면 안되죠?
 g 그게 경력인정이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t 고용보험을 들어야 처우개선비도 나오나용?
 q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g 경기도도 그렇던데.
 q 그래서 저희도 다들었어....
 u 왜 원장들이 안들어 주는데요? 이유가 모꼬..... πππ
 t 저희는 원장이 들어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들어 주네요.
 말해봐요, 보험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q 보험 들어야 다른곳으로 옮길때두 꼭 필요할텐데요...
 m 들어주면 고마운 거구 아니면 그냥있으라네요. 전 그 말 듣고 그냥 있어요.
 q 저두 꼭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 저 바보 같죠...
 q 들어달라고 하시지요, 나중에 나만 불이익당할텐데...요

이야기 여섯

블랙리스트?

t 다른 지역도 원장끼리 교사 뺏을 때 연락해서 뺏나요?
 q 그래요??
 g !님 있는 곳은 그래요?
 m 전화하던데요
 q 연락을 해서 뺏아요??
 t 네-- 당황스럽죠? 실습했던 곳에 전화도 하시던걸요
 u 연락을 왜하지, ππ
 t 그동안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 교사는 어떤지에 대학..
 m 그 선생님이 어찌 했나 그런 것 때문에
 t 여기는 한곳에서 잘못하면 다른 곳에 가기 힘들어요
 q 감시당하는 기분,,, 씁쓸하네여...
 t 다른 지역으로 가면 몰라도요,,π π !님 슬퍼용,,

이야기 일곱

정보는 알아서 찾아라!

s 3년 근무하면 1급으로 어떻게 동업되는 거에여?
 g 3년 근무 후에 승급교육 받으셔야 해요.
 z 3년 근무하고 4년차가 되면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신규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구요
 s 그건 알아서 찾아 가나여?
 g 예..알아서 찾아가야되죠
 z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에 가서서 신청하시면 되요
 s 경기도두여?

z 경기도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도 인천보육정보센터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g 맞네여..그게 ..

s 아--- 그럼 저두 알아봐야 할것 같네여 ..;

z 저는 이번에 승급할 수 있는데. 아직 신규보수교육을 받지 못해서 올해 그걸 받아요.

k 보수교육 어디서 받으세요? 저도 지난주에 받았는데..

z 모르겠어요,

k 이번 주 토을 한번만 더 받으면 되는데 .. 보수교육이나 승급 교육 받으실거면 시나 구립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에 자주자주 들러서 자료를 받아 보세요. 원으로 교육 일정 보내줘서 원장들은 자세히 말도 안 해주고,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니깐 별 신경 안 쓰거든요. 보육정보센터 찍으면 짜아아 악--- 나오거든요.

s 신규보수교육은 얼마만에 받는건가요?

z 3년 안에 받고요 3년 지나면 승급교육 받고요.

s 저는 그거 원장이 대신 가서 들구 받아왔던뎡

g 예? 원장이 대신 들어요?

s 그게 여름방학 때 받으라고 연락이 왔었나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며칠 원장이 가서 받아왔던뎡

z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10년인가 만에 받았대요. 그동안 원장이 안가르쳐 주었대요

k 저도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번에 받잖아여. 이번에 제가 받겠다고 하니까만 받지말래요..머하러 받냐면서

g 법 바뀌면요..보수교육인가 그거 안들으면 자격취소 된다는데.. 영유아보육법 개정되서 그런 조항 새로 생겼어요.

s 앙--- 떠나있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s 근데 그거 너무 웃긴당. 교사들두 사정상 그만뒀다가 다시 일할수두 있는거 중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그리고 한번 받은걸 그렇게 취소시키다니.... 저두 그걸 알아봐야 할거 같네여 .. 괜히 가까운 자격증 하나 잃으면 안되니깐

법은 그냥 법이다

아이가 여덟

정원이요? 법에나 있는 거지

k 아이들을 제대로 볼수가 없어. 전 낭중에 결혼하면 저대로 제 새끼는 어린 이집 종일반 안맞길래요

g 아이들이 많은가요?

k 전 6살반 27명이여

n 허걱

q 많다.. 혼자보세요??

k 네 어린이집은 27명이면 그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여??

g 많이 생각치 않으시잖아여

g 어린이집 정원은 20명인데요..

t 원래 정해진 인원은 23명이 아닌가요?

k 우리 원장님은 첨에 25명이 정원이라고 해놓고 오는 애들마다 족족히 받잖아여

g 법적 정원이 20명이예요. 한 교사가 한반에서 볼 수 있는 정원이요.

k 그건 법으로만이지여

k 저번에 보육정보센터 올렸더니 그런거 법으로만 되어있지만 사립은 원장 맘대로래요 할말 없죠..머

t 감사 나오고 그러면 신발 숨기고 그러나요

m 35명까지 보는 셈도 있던데....

k 지금 전쟁입니다. 책상 다.....치우고

m 원장님들 미워

g 어떻게 하루종일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봐요.

m 엄마들한테 말하지말라하고

k 맞아여..엄마들한테 말하면은 가뜰이나 뉴스에서 떠들어 댄다고 쉬쉬~하고 선생님들 교육 시키잖아여 엄마들 말하면 이렇게 말해라---이러면서

t 많이 힘드시겠네요..

k 우리 원장님은 제가 힘든척 하면 업살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데서는 30~40명도 혼자서 본다고 한답니다

그래도 왜 나는 아직 보육교사인가?

이야기 이음

나에게 힘주는 아이들과 엄마들...

g 그래도 뭔가 이일을 계속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k 마자여 천직이란 그 생각 때문이죠.

s 정말 그렇긴 해여

n 아이들의 환한 웃음

s 정말 애덜 얼굴두 보기 싫다가 한번 이쁜 것 하는거 보면 또 풀리구. 그 맛에 하는구나 싶기두 하구.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 소리듣구, 여자가 하기에 딱이란 소리 하는덴. 정말 모르구 하는 소리저

k 솔직히 이런 수모와 어려움과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일을 하는건 머 있겠어 여? 돈 생각했다면.. 그런 거 포기하면서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애들이 좋아서지요

s 어디 가서 연봉 야그 못해여.

k 물론 중간 중간 꼴통 같은 애들이 있어서 짜증도 나고 제 속을 다 태우기도 하지만. 솔직히 교사들도 인간이라

s 그리고 한 가지...정말 힘들구 맘에 안드는 엄마들두 많지만

너무너무 교사 힘든 거 신경 써주구 그런 엄마들 보면서 기운내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일이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는데,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척박해서 그날 그 밤에 보육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슬펐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힘내라 보육교사] 꼭지를 채워야 할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있어,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으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서로 위로하게 해줄 수 있어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육교사회라는 보육교사들의 단체가 있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라는 예쁜 이름 속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교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행복한지를 알려야 합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요구와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보육교사,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현장의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설의 숫자나 지원아동의 숫자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통해 정책이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보육교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월 2일 한국보육교사회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환영' 성명서 중에서)

채팅에 함께 해주신 321님, 걸팅님, 꼬미당님, 미니아이님, 민들레7님, 슬픈영혼님, 아유님, 워니~~님, 은빛노을님, 훈모님, 크루엘라^o^님, 투스님, 해진2님, 휘진님, 힘내자님, qlaffe님 감사합니다.

[경기지부]

신입회원교육을 마치고

이 종 회 · 경기지부 회원

보육교사회에서 신입회원교육을 한다.

보육교사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평동 어린이집의 일원이 되어 보육교사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른채...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면서 보낸 시간이 벌써 1년이다...)

드디어 5월29일 신입회원교육이 시작되었다

신입회원은 평동의 세분 선생님과 부천에서 한분 그리고 평촌에서 한분 나를 포함해 모두 여섯이었다.

17개월 된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오전에 출근해서 아주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저렇게 먼곳에서도 오셨구나... 생각하니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힘도 되고 ^^) 신입회원 교육을 맡으신 고영미 샘은 이전에 몇 번 뵈 적은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한다 평동어린이집에 와서 알게 된 모든 샘들이 그러하듯 영미샘도 보육교사회에서 가야할 길에 대한 확신이 넘쳐보였다. 아!! 부러워라..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어찌어찌하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지 올해로 10년이다

이게 맞나?? 하면서도 원 방침에 이끌리고 원장님 방침에 이끌리고 학부모님들의 방침에 이끌리며 고민스럽게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이다.



어쨌든 나는 평동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회를 알게 되었고 보육교사회가 앞으로 나의 보육교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모르지만 왠지 느낌이 좋다..

아직은 보육교사회 모임에 가면 어색함이 있다 신입회원 교육을 통해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샘들과 가까워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보육교사회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가야할 길이 조금씩 보이는 듯 하다.

내 의지로 만들어진 인연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내 의지로 보육교사회와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 잘 해 나갈수 있을까??

보육교사회의 모든 샘들 파이팅!!

[광주지부]

태백산맥을 다녀와서(스승의 날 기념)

최 미 라 · 광주지부 회원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지부 선생님들이 '태백산맥기행'을 다녀왔어요.

아침부터 물기를 잔뜩 머금은 흐릿한 날씨가 여행가는 마음을 더 설레게 하더군요.

우리 교사회 회원 여러분들도 참신한 ^^ 모습으로 나타났고, 처음 보는 새로운 선생님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출발 했지만 무려 남자(+)전문 가이드랑, 대학 1학년이라는 참신한 남학생, 교사회 회원샘들과 새롭게 만나는 꼬모 어린이집 선생님, 무지개 어린이집 선생님이 함께 하는 기행은 처음부터 시끌벅적 즐거웠답니다... ^^

자~ 이제 함께 하지 못한 샘들의 배를 좀 아프게 잠깐 기행 이야기를 해 볼까요?

내가 "태백산맥"을 읽어 본지가 언제였는지. ?? 기억속에서 조차 가물거리는 걸 보니 족히 10년은 되었을듯 싶네요. ^^;;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 속에서 광주에서 한시간 반 가량을 달려 도착한 별교는 녹차밭으로 유명한 보성군에 속한곳이라지요. 소설의 대부분이 허구일거라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소설 "태백산맥"은 철저히 역사적 고증에 의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 속에 등장했던 실존 인물들의 흔적과 소설을 구성했던 풍경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전 사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렇

다고 그것이 문화재처럼 관리되고 있지는 않았고, 일상 생활의 근거지로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더욱 놀라웠어요...

제일 먼저 발길을 옮겼던 곳은 봄에는 벚꽃길이 화려하다는 "현부자집"이었어요. 새로 복원을 시작했는지 여기저기에 덧발라진 황토와 나무향이 그득해서 왠지 관광지 같은 인상을 풍기기도 했답니다. 악덕지주의 상징이었던 "현부자집"은 소설속에서도 착취와 억압의 상징으로 나타나서 그런지 그 공간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아무도 관리 하지 않고 방치 되어서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벌교읍에서 관광자원 차원으로 복원을 해 놓았다고 해요. 폐허가 되었을 당시의 화면은 영화 "클래식(조승우, 손예진 주연...)"에도 나왔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가져왔던 벽돌로 담을 쌓았고,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양변기, 그리고 소작농을 감시하기 위해 대문 앞에 높이 올려놓았던 감시망, 대문 앞에 펼쳐졌던 인공연못이 현부자집의 위세의 흔적을 말해 주고 있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져서 터만 남았다는 소화의 집, 그곳은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지만 그래도 그곳엔 소화와 정하섭의 애절한 사랑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한 느낌도 ^^;

일제가 착취의 통로로 이용했다던 철길을 지나, 일본인 지주 "중도"가 소작인을 부려서 만들었다는 "중도방죽"을 지날 때쯤에는 흐릿한 날씨에 드디어 비가 뿌리기 시작했어요. 소작농이라는 이유만으로 땀가도 거의 없이 하나하나 돌을 옮겨서 만들었을 그 10리길이 뿌리는 빗줄기 때문인지 더 슬퍼 보이더라구요. 공원에 가서 점심도 먹고 추억의 놀이도 하자던 원래의 계획은 내리는 빗줄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만 했답니다. 다행히 기행 안내 하시는 분의 섭외능력으로 읍사무소 강당에서 점심도 먹고 추억의 놀이인 공기놀이도 했어요. 교사회 운영위원님들이 맛나게 준비해온 돼지불고기와 여러 반찬들로 입이 터지게 씹을 씹먹고 나서 결국엔 넘 많이 먹어서 쉽기도 어려울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 후문이. —^

소설 속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후 우린 다시 무거운(?)몸을 옮겼어요. 토벌군들의 회합 장소로 등장했던 "남도여관"은 지금도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현존해 있더군요.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신발 등에 의해 훼손 되었다며 관람을 꺼려하시는 아저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올라가본 남도여관 2층은 완벽하게 일본식 목조건물에 다다미와 도르레 창문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목조건물로는 2층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했는데,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더라구요.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죄없이 죽어 갔던 양민학살의 장소로 묘사되었던 "소화다리"도 가 보았는데, 여기서 소화다리란 소설속에 등장하는 소화라는 인물을 그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당시 일본 천황이었던 쇼쇼(??)다리 라는 말이 귀에 익숙

하게 변형되어서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강바람을 맞으며 웃으며 기념 촬영을 했지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단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답니다.

어느새 훌쩍 지나가버린 시간을 아쉬워하며 우리는 발걸음을 좀더 빨리해서 인도주의의 상징으로 묘사되었던 "자애병원"을 거쳐서 김



범우네 집으로 향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소설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김범우였는데, 사실 소설 속에서 가장 허구에 가까운 인물이 김범우라고 합니다. 김범우는 작가가 자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등장시켰던 인물로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 장면이 내 기억 속에서 남아 있는 듯해요. 김범우의 집으로 묘사되었던 장소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였는데, 저렇게 큰집을 가져 보는 것이 소원이셨던 동네 어르신 한분이 10년 전에 이 집을 인수하셨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던 탓인지 "현부자집"이 폐허로 남아 있는 것과는 달리 "김범우집"은 사람들의 관리가 있었다고 해요. 집안에는 현재 살고 계시는 집주인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소설 기행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익숙하신듯 밝은 미소로 우리 일행을 맞아주셨어요. 옛 고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분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소설속에서 해방구로 묘사되었다던 주릿제(율어)를 가 보았는데, 벌교의 수려한 산세와 지형이 그대로 내려다보이는 그곳은 소설속에서 죽임을 당했던 염상진의 시신을 옮겨 왔던 곳이었어요.

지금도 그곳은 지역 요새의 역할을 하며 레이다 기지망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아름다운 주릿제의 풍경을 뒤로 하고 우리는 아쉽지만 광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우리의 아픈 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 태백산맥...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고 올해 안으로 만화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역사의 진실과 소설의 감동이 맞물려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다시 한번 태백산맥 독파를 계획해 보기는 하는데...

10권이나 되는 대하 장편을 언제 ^^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어린이날 행사를 마치고……

이복레 · 대구지부 회원

장애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장애어린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무렵, 올해 행사담당을 맡게 되었지요. 년초부터 원장님이하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린이날행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행사를 지켜본 일이 없었기에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4월 하순이 되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행사전반에 대한 걱정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지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늘 염두에 두고 계시던 원장님의 넓은 마당밭로 동구 자원봉사센터, 전교조 동구지부, 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대구대학교 '풍당보리밥', 4개 대학교 연합동아리 '참빛회'가 주체가 되고 여러 군데의 후원으로 몇 번의 회의와 급한 장소섭외, 천막과 책상들을 구해오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과의 통합행사에 대한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 참가아동들에게 달아줄 이름표를 만들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집에도 못 보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온전히 아이들만을 위한 "제2회 동구어린이날 큰잔치"라는 큰 마당을 열게 되었지요.

행사 전날에는 비가 올까봐, 아이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을까봐, 점심준비를 할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행사에 큰 차질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쳤지요.

5월 5일!

화창한 아침을 맞이하면서 날씨 걱정은 사라졌지만 더 큰 걱정을 안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과 참빛회, 동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은 운동장에 천막과 책상 배치등을 하고 각 단체의 마당이 어울어지면서 큰 마당이 형성되었습니다.

접수처에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되는구나 싶을 때 줄이 길어지면서 제2, 제3접수처를 늘리면서 2백50개의 이름표는 동이 나고 1백여개의 자원봉사자 이름표까지 아이들 이름표로 만들었지만 눈깜짝할사이에 사라졌지요. 그래서 인근의 문구사에 2번, 3번씩 뛰어가서 이름표를 있는대로 다 사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표 없이 입장한 아이들이 얼마나 세어볼 염두도 나지 않았답니다. 비장애아아와 장애아아를 3대 1또는 4대 1로 짝을 지었지만 우리 장애아이들의 숫자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야 장애시설에 대한 홍보가 늦었다는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개회식은 30분이나 늦게 열리게 되었고, 마술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본부석 옆에는 식수를 제공하는 민들레 봉사단과 응급구조사협회의 앰블란스가 있고 미용봉사단과 목사님의 솜사탕기계 앞에 길게 늘어선 아이들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24반 무예시연에 대한 남자아이들의 관심은 대단했고, 요리마당의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서 맛을 보며 "아!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땐 내 배가 부른 것 같더군요. 천연염색마당에는 준비한 2백개의 조각천이 턱없이 모자라서 문 열린 옷감가게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사와서 아이들이 즐겁게 염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 할 즈음 다시 천이 모자란다는 연락을 받아서 뛰어 갔을때는 아이들의 입고 있던 런닝셔츠까지 염색을 해서 빨래걸이에 걸어 놓은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아쉽게도 마당을 접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은 동이 나고 급하게 사와서 나누어 주었지만 그래도 못먹었다는 애기도 들리고 모듬아이들이 배고파하니까 모듬교사가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해 주었다는 애기도 들렸습니다.

강령사자탈춤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직접 만져보게 했을 때는 한꺼번에 몰려서 만져보고 사자탈을 써보기도 하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질라라비 장애인야간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마당을 열어서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자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의 반응이 더 좋았구요.

'풍당보리밥'에서는 열쇠고리와 아트풍선, 페이스페인팅으로 아이들의 눈과 손을 즐겁게 했고, 과학마당에서는 프로펠러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고 있었고, 풍물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신명나게 풍악(?)을 울리고 있었고, 전통놀이마당에서는 투호놀이, 비석치기등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서 다음마당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달래고 있는 모습도 보였지요.

장애체험마당에서는 휠체어와 지팡이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눈을 가리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눈을 가리고 컵에 물 붓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 와중에 장애아이가 마당진행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서 소리를 질러서 자원봉사자가 놀라서 자지러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요. 장애자를 위한 자원봉사를 한다고 온 사람이 그것도 사전교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란다는 것이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종이접기 마당에는 종이접기 지휘회원들이 참가하여 아이들에게 색종이로 여러 가지 종이접기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책상 앞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잘 접은 색종이보다 더 예쁘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경쟁이 뜨거웠지요. 30여명의 신청자중 우리의 예쁜 선아가 '나비야'를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혼자 자신있게 불렀다는 게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뚱하게 했고, 참빛회 사람들이 수화공연을 하자 모여든 많은 아이들이 수화를 따라 할 때 저 아이들이 이곳을 나가서도 우리 장애아이를 두려운 눈빛이 아닌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지친 몸으로 운동장 청소까지 하고 앉아서 빈 운동을 보는데 왜 그리도 허전하던지.....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니었는지, 말만 장애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날이지 사실은 비장애아이를 위한 행사는 아니었는지, 비장애아이는 오늘 무엇을 가슴에 담아갔는지, 우리장애아이는 무엇을 보았는지, 앞으로 지역사회연계를 통해서 우리아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준비한 행사가 어떠했는지 몹시 궁금했는데 아이들은 재미있었다는 얘기와 부모님들도 행사가 좋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욱 알찬 마당과 재료들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다시 사려 다니는 일은 하지 않아야 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깐 같이 고생했던 여러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부산지부]

보육조례제정을 향한 한걸음 또 한걸음

김 순 아 · 부산지부 회원

'딩동'

한가로이 휴일 저녁의 휴식을 만끽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음을 알린다.

'보육조례 보육위원회 공개모집안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제. 내일 10시 긴급 집회 -부보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인가?

지난 한해 동안 부산시 보육조례를 주민의 힘으로 만들고자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청구서명을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삭제될 위기에 있다니... 다음날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교사들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나들이를 시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시청에 도착하니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기자회견 모습을 지켜보았다.

며칠 뒤,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의 면담에서 여성국장은 "답변할게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철회할 수 없다. 시민보다는 행정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취해 급기야 시민운동본부측은 보건복지여성국장실을 점거 농성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점거 농성을 하느라 고생하는 온비엄마(부산지부 회장님)를 지지하기 위해 우리는 또 한번 시청 나들이를 갔다. 10개월 된 하나를 유모차에 태운 채 농성장으로 진입, 농성장에 들어선 우리 아이들은 이번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운동본부 아줌마, 아저씨들이 귀엽다고 주시는 과자, 사탕에 입이 함박으로 벌어졌다. 온비엄마가 일단 공개 토론회를 거쳐 이 문제를 다시 재고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문득 지난 해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며 조례제정 청구 서명을 받기 위해 만났던 시민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중소 도시에도 있는 보육 조례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에 없다는 사실에 놀라던 시민들, 연간 아동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서울시의 1/10 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에 놀라던 시민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보자고 목에 힘을 주어 말하던 시민들... 그런 시민들의 힘을 모아 부산시 보육조례 제정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이런 행정은 비민주적 관료주의적인 처사라고 본다. 비록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시청나들이를 함께 했던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부산시는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 정책이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들 또한 꼭 제대로 된 보육조례가 제정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야겠다.

[서울지부]

스승의 날에 회원 가입을 한 새내기샘의 행사 참가기

서은임 · 서울지부 회원

띠리링—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벨과 문자 알림의 소리. 핸드폰이 바쁜 아침.

아는 선생님들의 축하의 메시지.

“스승의 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문을 보내며 생각했던 하루의 일상을 시작했었고 집으로 가는 길, 스승의 날 축전으로 걸었던 한 통의 전화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 근무 하는 곳에 임시 교사로 오셨던 황호정 선생님께 안부 전화를 걸었던 나는 교사의 날을 한다며 놀러 오라는 선생님의 말에 씩씩이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타고 있는 전철도 지나치는 길이었기에 간단히 선생님을 뵈 생각으로 갔던 나는 뜻하지 않게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고 교사의 날 행사에 끼게 되었다. 원래 야외 행사였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장소가 바뀌었다고... 거기에 나의 안부 전화, 가는 길에 있었던 장소... 아무래도 보육교사회에 회원이 늘었음 하는 바람들을 하늘이 들어 주신 듯.... —

인사의 자리(보기와는 다르게 낮을 좀 가림^^)와 그리고 강강술래로 하나 되는 자리(고등학교 때 해 보고 참 오랜만에 해 보는 자리였어요. 흥겹고 신났고 좁은 공간에서도 그렇게 모두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게

임의 시간. 게임의 시간 때에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머쓱했는데 빨강팀의 주장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어지는 저녁 식사 그리고 술 자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처음이라는 서먹함



보다는 편안함이 더 다가왔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뜻하지 않았던 올해의 스승의 날은 나에게 좋은 선물이 된 하루였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시간과 만남이어서 그날은 많이 쑥스러웠는데 다음 만남에는 더 큰 반가움과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좋은 만남 안에 끼워주신 호정이 선생님 그리고 반겨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남아 있는 올 한해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꾸세요.

이상 새내기 서은임이었습니다.^^

[인천지부]

스승의날 행사에 참석한 후

김정희 · 인천지부 회원

보육교사가 된 후 처음으로 다른 선생님들께 저의 글 솜씨를 알리는 기회가 찾아왔네요. 우선 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전혀 30세 같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커다란 소리로 웃고(어린이집이 들썩 들썩), 한 팔을 올려 인사하는 자칭 예쁜 병아리 김정희입니다. 처음에는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듣고 무척 당황했지만(제가 글을 좀...)그래도 힘내서 쓰겠습니다.

저는 인천지부 선생님들이 모이는 회의에도 1번 밖에 참석하지 못한 햇병아리인데 여의도에서 열리는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약간의 두려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서울·경기·인천 선생님들이 모이는 행사장소로 향했습니다. 처음 장소는 여의도 공원이었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씩씩이 어린이집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함께 씩씩이 어린이집에 모여 많은 선생님들의 얼굴도 보고 약간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지요. 행사의 시작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래놀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청어튀기도 하고 개구리 개굴전도하고 다리밟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조를 나누어 게임을 진행한다는 것이지 뭐니까? 그때부터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같은 조가



되기를 속으로 무지무지 빌었지만 오호라
저만 노란공을 뽑아서 저 혼자 노란조(복두
칠성)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뽑는 선생님들
과 함께 앉아 있으려니 조금은 어색했지만
조가?조구호를 정하면서 조금씩 선생님들
과 말도하고 행동도 같이 하니깐 조금씩 즐
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조 이름은 복두칠성(선생님이 7명이어서) 조가는 '큰별' (저를 포함해서 몇분이 약간
글래머해서)로 정한후 정말로 열심히 게임에 임했어요. 선생님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풍선 터뜨리기, 신문지 위에 올라가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들과 유대
감이 생겨 작은 울타리를 느끼는 것보다 좀 더 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
고 미니 올림픽(창던지기, 돼지씨름, 투포환던지기, 양궁)에서 복두칠성을 목놓아 응원
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구요. (참고로 제가 양궁에서 4점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축하 축하) 그리고, 우리 복두칠성이 드디어 1등을 거머쥐었지요. 모
든 경기가 끝나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진짜로 맛있었음) 간단한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
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
회가 되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작은 어항에서 벗어나 큰 강이 있
다는 사실과 다른 종류의 많은 물고기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아
직은 작은 병아리지만 큰 닭이 되는 그날까지 보육교사회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지런히 뛰는 아주 예쁜 병아리가 되겠습니다.

↓ 중앙활동

돌봄의 보육철학 : 기나긴 2년을 돌아보며

조 선 경 · 교육위원

2002년 4월, 한국보육교사회에서 93, 94년도 교육연구부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오윤정, 이현경, 조선경, 서은희, 남명자, (이영애와 박성연은 육아문제로 모임
을 같이 할 수 없었고) 거기에 전 사무국장 겸 교육부장인 최순옥, 전체 모임 진행에 사
무국 이선주. 이렇게 7명이 조직의 부름에 따라 첫 모임을 갖게 되었다.

큰 보상이 있거나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누구도 그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
다. 그건 왜였을까? 거의 10년 전 놀이, 노동, 공동체, 통일, 양성 평등을 주제로 아동관
토론회를 하면서 웬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덮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였을까? 그 때의 열기와 진지함이 이후 학교에서, 보육현장에서 보육인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바탕이 되는 철학이 되었기 때문이었을까? 정답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처음에는 10년 전에 정했던 보육교사회(이전 지탁연)의 4대 교육관에 전통이나 생태환
경, 인권 등을 추가해서 폭지를 만들어 하나씩 나누어 정리해볼까 가벼운 마음이였다.
그러나 10년동안 보육 현장도, 우리 자신도 너무 많이 달라져버렸다는데 의견을 같이
모았다. 틀부터 완전히 새로 짜야겠다는 의미에서 보육철학에 대해 공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정은혜 교수의 "교육의 새 패러다임: 관계중심 교육"을 시작
으로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시리즈 (1,2,3,4권)>와 여러 논문, 자료들을 읽으며 내공을
쌓았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14일 4차 회의 때 "돌봄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토론하게
되었다(이렇게 낱자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선주가 모임을 잘 정리해놓은 덕).
누가 먼저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거다" 싶게 우리의 마
음을 사로잡는 그 무언가를 담고 있는 말이였다.

그 때 왜 돌봄인가?, 여자들의 일로서의 보육, 아이와 교사의 관계 문제, 짝여진 시간에
엄매인 보육시설에서의 하루일과, 조기교육, 아이의 현재가 중요하다(미래에 대한 대

비가 아니라), 교사의 성장...참으로 많은 주제들이 이야기되었다.

그 후로도 세미나를 하면서 왜 돌봄, caring은 평가절하되는가, 아동중심과 돌봄은 왜 다른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을 어떻게 교육 속에서 녹여낼까 등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였다. 무언가 생각은 많은데 어떻게 모아내야할지는 모르겠고 차츰 모임이 부담으로 다가오던 중, 2003년 1월 총회에서 "보육의 새 패러다임: 돌봄의 교육과정"을 정리 발표하기로 하였다. 서은희가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중간 보고를 하였고 은희는 뉴질랜드로 훌쩍 떠나갔다. 총회 때 회원들에게서 받았던 호응은 이후 전국 지부별 순회 토론회로 이어졌고, 이 토론회에서 자신이 경험한 돌봄들을 함께 나누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우리는 공부와 고민을 계속 하다가 2003년 8월 9일 모임에서 돌봄에 관련된 논의의 주제들을 뽑아보았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보육의 사회적 맥락(가족, 여성, 아동 역할의 변화, 빈곤, 소수자, 반편견...)

-보육기관의 관료화

-아동발달, 아동중심, 놀이중심 이론의 해체: 아동의 목소리 회복하기

-교사의 실천적 지식 구성

-돌봄의 유아교육과정

중간에 결합한 서정은까지 6명이 한 주제씩을 맡아서 원고를 써오고 거기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다음에 다시 써오고 하는 지난한 과정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 때 어찌나 원고를 쓰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았는지 11월 8일의 내 노트에 "내부의 강제가 필요"라고 쓴 메모가 유독 눈에 띈다.

한 번 모임을 하려면 6시 30분에 시간을 잡아놓고 정식 모임을 시작하기까지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은 이것 저것 먹고, 수다 떨고(우리는 항상 이 시간을 오프닝 게임처럼 즐겼다), 여덟시나 되어야 본 모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본론에 들어가면 모두 입을 다물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던지고, 농담이나 빗나간 주제가 시작되면 활기가 살아

아나고 하기를 수차례... 이렇게 힘겨웁게 우리 모임은 계속되었다.

모임은 다가오고 써야할 원고는 써지지 않고, 간간히 휴대폰에 찍히는 선주의 문자 메시지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되어도 우리에게 조련사의 채찍



을 방불케하였다.

또 책임있게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그냥 마구 써 내려가야 할 지, 참고문헌과 자료의 출처를 충실히 밝혀 학자적 양심을 지켜야 할 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었다.

원고를 일곱 번이나 썼다가 막판에 다시 수정한 정은이, 앞으로 이 자료를 출판하게 되면 생피하니까 우리 성과 이름을 바꾸어 넣자고(남 현경, 오 선경 등) 농담하며 웃기도 하였던 일들....

2004년 5월 29일 이라는 워크숍 날짜를 받아놓고는 근 두 달 동안 매주일 모임을 가졌다. 어린이집 일에, 학교 공부에, 교육위원회 회의에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지친 나는 모임에 몇 차례 빠지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런데 나 말고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매주 계속되는 모임을 이어갔다. 정말로 지독하고 대단한 사람들...

역사적인 5월 29일, 결국 우리는 해냈다. 몇 번의 세미나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남명자 선생님의 "돌봄이란 무엇인가"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해가 되어 펴듯이 기뻛고(그 난해한 원고를 처음 보는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최후의 순간까지 원고를 미루고 미루며 과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를 의심하게 했던 두 사람, 순옥 샘과 윤정이가 쓴 멋진(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고가 드디어 한 권의 자료집으로 묶일 수 있게 되었다.

멀리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워크숍에 오신 선생님들, 거기 모인 모든 교사들이 보육경력 10년차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보육교사회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 사실보다 6개의 주제 전부를 발제 30분에 토론 30분, 의견쓰기 20분이라는 강도 높은 요구에 맞추어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회원 모두의 자세에서 보육교사회와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왜 10년이 훨씬 넘도록 이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걸까? 우리가 지향하는 보육의 상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의 보육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나누며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같이 이 길을 걸어온 우리, 자랑스럽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인 것이 감사하다.

워크숍을 마치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자료가 한 박스란다(워크숍 참가자들이 읽으며 줄치고 메모한 자료를 그대로 다 모아놓음, 아!! 지독스런 이선주). 그걸 정리하고 다듬으며 올 여름을 보내겠지. 내가 어찌다가 이 조직에 들어왔을까, 투덜거리며.

양심선언 보육교사, 신분 안정 위협

구로 구립 M어린이집 교사 고용승계 문제 논란

동 성 혜 · 본지 객원기자

서울 구로에 위치한 구립 M 어린이집 원장의 급식비 유용 비리 사건이 교사들의 고용 승계 문제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월 15일 SBS 8시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점심 식사로 나온 아이들의 반찬은 나물 약간과 깍두기, 고기 몇 점. 그 양도 턱없이 적었으며 수박 한 통을 86조각으로 나눠 86명의 원아들에게 먹이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다 된 음식을 간식으로 주었다. 당시 원장은 아이들 개개인에게 하루에 배급돼야 할 최소 급식비 1745원을 아끼기 위해 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식단을 짰고 남은 금액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유용했다.

아이들 간식비를 줄여 횡령하던 원장의 모습을 보다 못한 어린이집 교사 6명이 양심 선언을 해 언론에 알려지게 됐으며 원장은 지난 16일자로 면직됐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의 해결로 어린이집 내 비리문제를 고발한 용기있는 교사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에서는 "시설장과 교사들이 몇 년 동안 같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설장과의 관련이 있는지 여부, 상한 음식 사진 찍고 늦게 고발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교사들이 비리문제와 연루됐음에도 원장을 포함한 것처럼 묘한 분위기를 남겼다.

원장과 교사들 모두 자주 드나드는 서울보육정보센터 게시판에서도 "교사들이 알면 서도 아이들에게 쓰레기 음식을 먹였다. 원장을 몰아내려는 교사의 승리다"는 식의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으며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을 두 번 울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게시판에 댓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양심선언으로 교사들이 신분 안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입을 연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교사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양심선언을 하기 더욱 힘들거다. 그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다"고 밝혔다.

서울 S어린이집의 K교사 역시 "교사들의 양심선언은 곧 직장 포기를 의미하는 현실이다"며 "원장과 교사들의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다. 아무리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해도 고용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더구나 민간 어린이집은 말할 것도 없다"고 교사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사가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특히 어린이집의 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고는 드러나기 힘들다.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할 때 물을 가득 머금은 눈빛의 순수한 우리네 아이들 권리는 과연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때다.

"교사 권리는 교사 스스로 지켜야"

구립 어린이집 원장의 급식비 유용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들을 만난 것은 지난 6월 22일이다. 태풍 '디엔무'의 영향권에서 채 벗어나지 못해 축축히 비가 내리던 저녁 7시 30분. 하루종일 아이들 돌보라, 구청 감사에 시달리랴,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들의 모임에 뒤처닥거리하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교사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인터뷰에 응했다.

참석자 어린이집 교사 6명, 한국보육교사회 소속 회원 3명
(교사들의 신분 문제로 모두 가명처리 한다)

한국보육교사회(이하 한) 비리고발 이후 오늘로 8일째다. 현재 구청과 협상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교사 A 우리 생각에는 잘 해결되고 있다고 본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어린이집 운영의 직영으로 전환은 95% 정도 통과됐다고 본다. 교사 고용승계 문제는 협의가 없으면 100% 승계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부구청

장의 사인까지 받았다.

한 혐의가 없으면 고용승계한다고 했는데 혐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며 경찰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가.

교사 B 원장이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는지, 교사들이 원장에게 묵인을 전제로 돈을 받은 것은 없는지 등의 회계에 관한 내용들이다.

교사 A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 특히 회계 부분에 대해 교사들은 전혀 모른다. 원장이 혼자 다 처리했다.

한 그래도 다행이다. 다른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처리를 교사에게 시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교사가 양심선언을 해도 사표는 물론 도덕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는다.

교사 A (어휴~) 그런 일은 생각도 하기 싫다.

한 경찰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교사 A 어제(6월 21일) 근처 카페에서 30분 정도 얘기했고, 오늘은 서류만 받았고, 내일 하루종일 조사를 받는다.

교사자리 내놓고 싶지 않으면 가만있으라던 공무원이
원장 횡령은 교사의 직무유기라고?

기자 현재 심정은 어떤가.

교사 A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당황스러웠다. 교사들이 언론에 공개한 핵심 내용은 원장의 횡령 사실이다. 횡령을 하기 위해 아이들 급식을 형편없이 준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당시 불량 만두과동 문제로 언론에서는 썩은 음식을 줬다는 것만 보도됐다. 실제 아이들에게 썩은 음식을 먹인 적은 없다. 바나나와 오렌지 등 방송에서는 썩은 음식을 동영상으로 보여줘 우리 교사들 피해가 너무 크다.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교사들의 근무 연수가 오래 되니까 그동안 왜 묵인했느냐라는 구청의 반박이다. 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너희들도 직무유기다'라는 말만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한 언론에 공개되고 구청에서는 무슨 반응을 보였나.

교사 A 원장은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 할 말 없지만 너희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

다. 왜 너희만 고용승계를 요구하느냐며 압력을 가했다. 솔직히 우리 교사들은 사표걸고 한 일인데 마치 고용승계만 부르짖은 것처럼 보여지는 게 너무 답답했다.

한 현재 원장은 횡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교사 D 그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한 것으로 안다. 내일 조사받겠다고 경찰에서 얘기 들었다. 구청에서는 원장이 지금까지 횡령한 비용이 한 천만원쯤 될 거라고 했다.

교사 E 우리가 공개한 영수증 자료만 해도 3개월에 6백만원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사 B 그래도 다른 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면 누구라도 말리고 싶다. 각오는 했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단한 조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결속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

교사 A 공무원들은 자기 보호막이 너무 철저하다.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처럼 힘없는 교사들에게는 꺾 수 없는 장벽이었다.

교사 C 우리가 처음부터 언론에 공개할 생각은 아니었다. 급식에 대해 원장에게 몇 번이나 건의를 했어도 계속 무시당했고 오히려 원장의 횡포는 더 심해졌다. 감정적으로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식단은 사진을 찍은 것이다. 구청에서는 자기들에게 먼저 얘기하라고 하지만 위탁업체 회장, 같은 동 내에 있는 다른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 우리 어린이집 원장이 모두 한 식구인데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믿게 해줬다면 정당한 감사 때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자료를 갖고 서울 시청 공직자 비리 센터를 찾았다. 그때 "이런 원장의 비리는 비밀비재하니 교사자리 내놓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라"하는 반응뿐이었다. 역시 한술밥 먹는 공무원끼리는 한편이란 생각이 절실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굴 믿을 수 있겠나. 고민 고민 하다가 언론을 생각한 것이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원장이 혈압도 높으신데' 하는 생각에 많이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결심한 거였다.

교사 B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무원들이 우리 교사들을 보면 원칙만 내세웠다. 담당 국장이 "우리 구의 원칙은 위탁제가 바뀌면 교사도 새로 공개 채용해야 한다"며 몇차례 원칙을 강조한 협박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무섭고 불안했다.

교사 C 처음부터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만 생각했다. 일을 터트리자고 한 것은 원장의 비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 하나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커지니 하루에도 열두번씩 마음이 들었다 났다 한다. 일주일 동안 10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어도 잠도 오지 않고, 속이 허한게 괜히 뭔가 먹고 싶은 생각만 들고, 막상 음식을 봐도 많이 먹지 못한다.

교사 B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무식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발 직후 여러 단체에서 왔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단체인 줄 알고 무조건 숙내를 다 드러내놓고 애기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계획성있게 추진한 것도 아닌데 "원장을 모함하려고 저런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아이들 식단이 교사 식단,
상한 음식 먹은 게 아니라 질이 떨어져

기자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음식 논란이 계속 됐다. 정확히 상황을 밝혀달라.

교사 B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원장이 횡령을 하기 위해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시킨 것이지 아이들에게 썩은 음식을 준 것은 아니다. 방송 보도에 실제 내용은 없고 상한 음식만 확대돼 속상하다. 그 뉴스를 보고 졸업생 학부모까지 와서 항의를 했다. 이번에 감사로 학부모들을 통해 안 사실 가운데 하나는 돼지고기 5근이 7500원이란 거다.

교사 C 솔직히 우리는 아이들 돌보라, 학부모들 분노도 풀어줘야 하고, 언론도 상대



6월 21일 구로구청 앞 집회에 참가한 미래 어린이집 학부모님들

이런이런 정황하를 위한 학부모 요구안

교사 C 해야 하고, 일도 진행해야 하는 처지라 너무 지쳐 있었다. 그래서 영수증을 볼 때 총액만 보고 횡령 액수를 추정했는데, 학부모들은 당장 자녀들이 먹은 음식이라 그런지 그 내용까지 꼼꼼히 살폈다. 두부 1모가 300원하는 것도 나을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음식들이었다.

교사 B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복지회를 통해 들어온 푸드뱅크 음식이었다. 정말 그걸 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더욱 확고히 결심한 거였다. 그리고 그 음식들 모두 교사들도 똑같이 먹었다. 그때 애들하고 똑같이 오렌지를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 오렌지를 좀 많이 먹었다. 다 먹고 입이 써서 옆에 선생님들에게 오렌지가 왜 이렇게 쓰냐며 애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많이 오해했다. 교사들 식단은 따로 준비된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일 없다.

교사 C 오히려 감사 나온 사람이 교사 1인당 1000원의 급식지원비가 있다며 다른 원의 원장은 교사들 힘들다고 지원비 이상을 투자해 먹이는 데 여기는 정말 심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솔직히 교사들도 항상 배가 고프고 서글펐다.

교사 권리는 교사 스스로 찾아야

한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사 B 예민한 문제다. 우리가 이런 힘겨운 일을 시작한 것은 아이들을 생각해서였다. 당장 우리의 고용승계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 있는



구로구청 앞 집회에 참석한 한국보육교사회

교사 6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됐다. 원장의 횡포에 보다못해 고발한 우리들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교사들이 자기 목을 걸고 이런 일을 하겠는가. 구청장 역시 부모들에게 지금 교사들보다 더 질이 좋은 교사들을 쓰겠다고 암암리에 우리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그 말에 귀를 솔깃하는 몇몇 부모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교사 A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교사들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부모들도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야 했던 교사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런지 밤새도 부족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인터뷰 말미에 마지막으로 꼭 써달라고 부탁한 말이 있었다. "교사들 서로가 의지하고 믿어야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 단 한명이라도 평행이 깨지면 힘든 싸움이다. 교사가 뭉쳐야 한다. 이젠 교사들도 당당해야 한다."



미래 어린이집 어머니 발언중

M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요구안

요구 1.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에 관한 건

- ① 비리 원장의 법적구속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
- ② 해당 M어린이집 위탁업체의 처벌 및 영구적인 재참여 금지

요구 2. 어린이집 운영의 직영화전환 및 교사 고용승계 문제

※ 이는 6월 17일 현재 구청장 면담 시, 직영 제 운영 전환의 구두 약속.

- ① 그 전환 시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행정수립 후 공개방식으로 집행
- ② 임시원장의 부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후임 정식원장을 모집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식 채용한다.
- ③ 단, 후임 정식원장채용 시, 학부모 의견수렴 및 참여보장을 요청한다.
- ④ 현직 교사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서는 학부모들은 현 교사들의 어떠한 불이익도 원치 않는다.

따라서 현 교사들의 100%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금후 교사 개개인별의 부적절한 문제가 노출될 시에는 재논의한다.

요구 3. 관련부서 및 관련공무원의 처리에 관한 건

관리감독부서, 관련공무원의 관리감독 책무에 대한 업무소홀과 직무유기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며, 전반적인 감사 및 조치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요구 4. 현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제도개선요구사항

- ① 구로구내 구립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전면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결과에 대한 보편화된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예 관련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정식보고, 구청 홈페이지, 구청 공고판 등)
- ②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매년 결산 공고 및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민 참여기구 설립

2004년 6월 22일

M 어린이집 학부모 일동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 최저임금 76만6천원.

이윤경 · 공동대표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에게 그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수준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교와 문화와 교육은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하면서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특질을 살려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즉,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피곤할 때 누워 쉴 수 있는 공간과 덥고 추울 때 몸을 감쌀 수 있는 옷과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가끔은 친구나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교생활을 즐기고 인간이 창조한 문화(미술, 음악, 연극, 영화, 글 등등)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런 정도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두 가능하려면 그 사회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복지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얼마인지 정말 궁금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경실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5월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76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현재 한달 최저임금은 567,260원(시급 2,510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게

766,140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관련해 766,140원은 지난 해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531,803원의 50% 수준이며, 통계청 3인가구 생계비 2,113,500원의 26.8%, 노동계 제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 1,179,491원의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5월쯤 되면 그 해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놓고 그 돈을 받는 노동자와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 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그리고 노동자, 기업, 정부가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하면서 마무리된다. 이 금액은 법정근로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월급여수로 그 사람의 가치까지 결정되어 버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그나마 인간이 자기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1시간동안 일한 대가로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 한 개 값(2,500원)을 받는데 불과하다. 그나마 최저임금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자 평균급여액의 50%로 오른다면 빅맥버거(3,200원)정도를 먹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그 선명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어디선가 일하고 있을 그 사람들 덕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작은 공장에서 볼트를 조이는 사람들,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 각종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와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육교사들까지도 '최저임금'은 그들에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작은 씨앗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그저 이 사회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법정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주장하셨지만, 득도도 못한 나 같은 일반 중생은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저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올해는 꼭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정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 **상담실 Q&A -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 코너는 한국보육교사협회에 들어온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으세요.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을 이용해주세요.

블랙리스트

Q1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임신 사실을 알면서부터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퇴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저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하던 일을 관둘 수 없기에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4개월째부터 별 이유없이 임금을 10만원 감봉하였습니다. 곧 그만 둘 것이고 임신을 하면 일에 소홀해질 것이니 감수하라는. 그리고 8개월이 되는 6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십니다. 임신을 이유로 교사를 강제로 해고할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3개월 산전후 휴가를 주시면 3개월 후 다시 일하겠다고 하니 그럼 3개월 동안 일할 선생님을 직접 구해서 월급도 저보고 직접 주라고 하십니다. 사실 임신중이고 싸움에 휘말리거나 원장님과 좋지 않은 관계로 끝내고 싶지 않아 참으려고 했지만, 급여를 삭감하고 부당해고의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삭감된 급여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또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해고 등에 차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시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략)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임신을 이유로 통상임금을 적게 지불하는 것은 근로조건 차별에 해당되며 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규정하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만원 감봉된 임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지급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원장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체불임금으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출산휴가 - '산전후휴가' 에 관한 모든 것

Q '산전후휴가'는 모두 며칠인가요? 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A '산전후휴가'는 90일이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휴가기간 중 60일분의 임금상당액은 현재와 같이 사용자(고용주, 시설장)가 지급하고, 연장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 임금은 보험재정에의 기여를 감안하여 '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180일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산전후휴가' 개시 시점에서 12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함. 다만,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면서도 사업장 또는 당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하고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3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Q 휴가시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전 본인의 통상임금(월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Q 출산휴가중에도 정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전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60일만 휴가를 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됨

'산전후휴가' 급여는 해당근로자가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6월 이내에 '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와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은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보너스!! - 육아휴직

Q 육아휴직이란?

A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

A 생후 1년미만의 양아를 가진 남녀근로자는 누구든지 양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육아휴직을 무급으로 하여 1년이내의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매월 20만원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또 사업주(시설)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고용보험)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나 여성의 경우 최소한의 산후휴가 기간인 1.5개월은 제외되므로 최대 10.5개월까지 지급합니다.

- 그러나 육아휴직 중 중도에 회사를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퇴사

전일 또는 취업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육아휴직급여는 해당근로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에는 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육아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을 주는 시설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개정 고용보험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은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직무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즉 휴직교사를 복직시켜 근무하도록 한 경우에만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산전후휴가기간중 및 휴가종료후 30일 이내에 해고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11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 법 제72조에서 정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고,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후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제4항 및 동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벌금 5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 사용이나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거나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로 차별시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후원모금 50일 집중기간

한국보육교사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를 후원모금 5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열렬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하나

한국보육교사회 후원회원을 모아주세요.

● 신청방법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후원배너, 대표메일(kdta@chol.com), 전화(02-2271-1548)를 통해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세요.
후원회비는 매월 25일 cms를 통해 계좌 출금됩니다.

● 후원회원님께는

격월 발간되는 기관지 [우리네아이들]을 발송해 드립니다.
보육정보제공 등의 이메일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참여방법 둘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자를 모아주세요.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을 하시면 좋은 엄마에서 한 분당 5000원씩 한국보육교사회에 후원해줍니다.

● 신청방법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후원배너, 대표메일(kdta@chol.com), 전화(02-2271-1548)를 통해 성명, 주소, 연락처, 입금자명,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세요.
한국보육교사회 계좌(우리은행 817-366200-02-001 예금주 이윤경)로 정기구독료 25,000원을 입금해주세요.

● 정기구독안내

1년 정기구독료는 25,000원입니다. (날권 구입시 2,500원)
정기구독자 네 분을 모아주신 분께는 격월 「좋은 아빠」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본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좋은엄마로 연락(02-3143-1898 유현경)주세요. 받아보실 때까지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자선물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3-10세의 영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에듀리닷컴(eduree.com) 1개월 이용권을 드립니다.

정기구독을 연장하는 독자에게는 본사에서 발행한 단행본을 한 권씩 드립니다.

정기구독자 네 분을 모아주신 분께는 본사에서 발행한 단행본을 한 권씩 드립니다.

“2004, 보육의 새 길을 열어갈 전국 보육교사 한마당”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올 여름

전국의 보육교사들이 모여 신나게 놀고

주위의 동료 교사들을 만나 힘을 받고 돌아가

아이들과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보육교사 한마당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보육교사 여러분!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일시 2004년 8월 28일(토) - 29일(일)

장소 경기도 양평 미리내 리조트

대상 한국보육교사회 6개 지부 회원과 보육교사

참가신청 한국보육교사회 (02-2275-8505)

- 보육정책 특강 "보육교사 근무환경 현황과 개선방향" -

행복한 보육교사, 행복한 아이들

흔히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질은 보육교사 개인의 노력과 자질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노력이 인정받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보육현장의 변화 없이는 보육교사의 질도 보육의 질도 향상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스스로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에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혜란 한 명의 현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체험과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보육교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행복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사 이윤경(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서울시 보육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
일시 2004년 7월 3일(토) 오후 2시30분
장소 충청남도 홍성 YMCA 강당(홍성 매일시장앞)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참가신청: 02) 2275-8505)
주관 한국보육교사회 충청지부 준비모임(홍성) (참가신청: 041) 633-3221)

※교육 참가비는 없습니다.※

㉠ [교육/연수] 양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보육정책 (예정)

강사 성향숙, 전해숙 전문위원 (부산여성센터 교육운영팀)
시간 2004년 7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
장소 부산여성센터 13층(범내골 소재) 예상인원 50명
대상 보육시설종사자 및 교육에 관심있는 분
문의전화 부산광역시 보육정보센터 051) 866-0536-7
교육비 무료
신청 마감 2004년 7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교육신청을 받지 않으니 미리 교육신청을 해 주십시오!

- ※ 참석자 등록을 오후 1시 30분부터 하오니, 교육시작 30분 전에 교육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 교육수료후 수료자에 한해서 연수증서를 드립니다.
- ※ 교육참가자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시간엄수!!!

㉠ [공연] 장애아동을 위한 성교육 (인형극) 안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인형극 - 내 몸은 소중한요"를 공연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1. 일 시 : 2004. 7. 5(월) 15:30~16:30
2. 장 소 : 복지관 3층 강당
3. 대 상 : 초등학교 재학 이상의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30명과 보호자
4. 내 용 : 신체명칭알기, 속옷착용 알기, 자위행위에 대한 내용 알기
5. 극 단 : (사)내일여성센터
6. 비 용 : 무료
7. 기타사항 : 함께 내관하신 부모님·선생님께서는 "생활교육으로서의 가정내 성교육 안내" 자료를 드립니다.
8. 접수문의 : 989-4215-8(상담지도팀 김아람)

강북장애인종합복지

중양소식

- ◆ 5월 6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 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진행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 5월 6일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 ◆ 5월 7일 기획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5월 8일 조직부 연석회의가 대전여민회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과 여성수련회 기 조에 대한 공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 ◆ 5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보육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나 당일사정으로 공청회가 정상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 5월 10일 제 2차 교육정책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 5월 12일 YWCA 강당에서 YWCA주최로 <바람직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 5월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이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이사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5월 13일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 ◆ 5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모성비용 사회분담화 방안마련을 위한 워크샵>과 노동위원회 정기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노동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5월 17일 교육센터에서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교육강좌가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강사로 수고하셨습니다.
- ◆ 5월 17일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실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위한 두 단체 공동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5월 18일 한일보육교류연수를 위한 회의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 한일보육교류연수협의회, 한국보육교사회가 참석하여 2004년 한일보육교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리회에서는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 5월 20일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 ◆ 5월 21일 여성부장관이 주최한 <여성단체임원진 초청 오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5월 21일 기획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 5월 22일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 5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라크 파병문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17대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5월 24일 제 3차 교육정책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 5월 29일 교육위원회의 돌봄보육철학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교육일꾼 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 5월 31일 북한 통천참사 때 무너진 통천초등학교를 돕기 위해 한달간 모금한 성금 1,900,680원을 통천돌 기여성해동에 전달하였습니다.
- ◆ 6월 3일 여연복지위 주관으로 <보육재정공공성확보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6월 4일 기획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 6월 7일 교육정책팀회의가 있었습니다.
- ◆ 6월 8일 여성부 소식지인 여성과 정책에서 이윤경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 관에 대한 기대와 바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 6월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교조가 주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경아 정책위원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6월 11일 한겨레신문에서 이윤경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 6월 12일 부산지부 신입회원교육에서 이윤경 공동대표가 6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 ◆ 6월 13일 조직부장연석회의가 중앙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각 지부 조직활동에 대한 보고와 논의, 여름 수련회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6월 21일 교육정책팀회의가 있었습니다.
- ◆ 6월 24일 인천지부 임시전체회의에서 이윤경 공동대표가 보육교사회 사업계획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 6월 29일 여연복지위가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된 가족정책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지부소식

[경기지부]

- ◆ 5월 9일 이교진 회원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전통혼례로 야외 결혼식이었는데 비가 와서

실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재미난 결혼식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통천 소학교 어린이 돕기 모금에 지부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빠른 복구와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 ◆ 5월 15일 스승의 날 자축 수도권 연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샘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 ◆ 5월 29일 수원에서 경기지부 제1차 신입회원교육이 있었습니다. 진지한 신입회원들 땀에 휴식시간도 없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 후 선택과 신입들의 맛난 저녁식사도 있었습니다.

- ◆ 6월 8일부터 시작된 (4주)일꾼교육에 경기지부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근무 끝에 진행되어 모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훌륭한 전달교육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회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 안산시 보육정보센터 10주년 기념 [평가인증제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에 고영미 조직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보육교사가 보는 평가인증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 6월 12일 경기지부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 ◆ 6월 12일 정보홍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보홍보부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합니다.

- ◆ 지부 카페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재미난 지부카페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6월 26일 경기지부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보고와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 ◆ 4월 26일 영아교사소모임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6명의 회원이 함께 했구요, 서로 인사 나누고 소모임 장도 뚫고 앞으로 소모임의 내용

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아소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29일 근로기준법 소모임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구성원은 모두 7명인데 모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모임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부 집행국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용천 동포들끼리 거리 캠페인에 일부 회원들이 참여해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월 12일 확대운영위 교육이 있었구요

◆2004년 조례 제정 활동을 위한 첫 준비 모임(교사회, 여성연합)을 가졌습니다.

◆상임집행위 구성을 새로이 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조례제정 활동을 6월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 전대 '여성과 NGO' 강사와 수강생들과 간담회(회장, 박화명 회원)가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대부분 현재 광주전남에서 의원이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 회를 알려내고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16일 제 24주년 5.18기념 대동 한마당 및 5월 여성제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복덕 아 이들에게 엽서 쓰기, 보라풍선 모자 만들기, 평등·평화 팔찌만들기 등의 참여마당을 준비하여 광주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5월 17일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삼보일배 행사에 우리지부 집행국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 18일 쿠와바라 목사님 감사패 증정식에 참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인권상에 일한보육교류회의 쿠와바라 목사님을 추천하였는데 수상하지 못하여 한일보

육교류회의에서 감사패를 증정하였답니다.

◆5월 19일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에 일부 회원들이 참석하여 열심히 서명을 받았습니다.

◆5월 24일 두 번째 영아교사소모임을 했습니다. 이날은 각 시설별 보육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끝나고 간단하게 땀뽀이 시간도 가졌지요. 그리고 소모임 회원이 세 명이나 늘었네요.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5월 26일 5월 월례회 겸 보육교사 열린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 배경인 벌교 이 곳 저곳을 밟아보고 왔지요. 비회원도 함께 참석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5월 29일 한국보육교사회 돌봄 워크샵에 우리 지부에서는 회원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 2일 2차 근로기준법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근기법 모임은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4일 여성정책포럼(주최: 여성단체연합)에 참석하였습니다.

◆17대 총선 평가와 총선 이후 여성운동의 과제와 지역여성정치세력화의 구체적인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6월 5일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 행동의 날 문화제에 참석하여 이라크 파병 반대에 대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보였습니다.

◆6월 8일 지부 운영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6월 11일 여성노동자회 "일자리창출 사업" 초등학교 방과후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부 집행국장님이 놀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6월 16일 두 번째 확대 운영위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확대 운영위 교육에는 각 소모임장과 부서장까지 참여합니다.

◆6월 19일 6월 월례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무료 발관리 강좌와 회원 생일 잔치 그리고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눌 거구요, 7, 8월 지부 일정공유가 있을 예정입니다.

◆7월 9일, 10일, 14일 지부회원 집중교육이 있습니다.

◆7월 24일 지부 재정사업으로 일일호프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요, 장소 확정 되는대로 홍보하겠습니다. ^^

[대구지부]

◆6월17일 대구지부 회원 약 10분이 디딤어린이 집에서 모여 7월에 있을 돌봄 교육강좌와 대구지부 운영에 관한 생각을 모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 26-27 한사랑어린이집에서 표충사로 생활 교육 캠프를 갈 예정입니다. 참석인원은 약 60명 정도이고 즐겁고 안전한 캠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부]

◆4월 24, 25일 해운대 삼성연수소에서 일꾼 교육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와 일꾼들, 조직위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윤경대표도 오셔서 강의 해주셨습니다. 또한 멀리 대구에서도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 12일 신입회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지하방에서 회원교육을 가졌는데, 이윤경대표, 포구나 무 어린이집의 김혜원 선생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신입회원 교육을 하지 않아 올해는 낮익은 신입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신입회원도 있습니다

김인숙 회원(영도 상리 자연어린이집 원장), 김기주 회원(해운대 LG놀이방), 고나리(포구

나 무 어린이집) 정영숙(포구나 무 어린이집), 박덕순(쌍생어린이집)

◆보육조례 관련하여:

시에서 공개모집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첨부 자료를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올리고 시의회 상임위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항의방문하고 시의회에 의견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국에서는 절대 철회할 수 없다 하였으나 보육조례제정 운동본부의 끈질긴 요구에 시의회에서 다시 토론회를 해보기로 하였고 6월 10일 비상임위와 운동본부, 시설연합회, 시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하였지만 입장차이만 드러내고 끝났습니다. 시와 시설 연합회에서는 보육위원회에 공개모집에 대하여 행정력 낭비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운동본부는 보육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 공개모집안은 시민발의 조례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지부]

◆5월 15일 "우리 미래를 키우는 보육교사잖아"라는 주제로 경인권 스승의 날 자축행사가 여의도에서 씩씩이로 장소를 바꿔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 비가 왔었거든요. 실내에서 진행되어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더라고요. 신나게 놀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땀뽀이도 진하게 하고...

내년 스승의 날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

◆5월 18일 8차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집들이집 홍보부장 생일축하도 있었구요. 조직체계와 재정, 6월 교육에 대한 논의를 했지요.

◆5월 25일 근기법 모임이 장충동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5월 29일 2002년부터 진행되었던 교육위원회의 보육철학을 정리하는 돌봄 워크샵 서울 지부에선 이성봉, 서주희, 황호정, 이보경, 이선미샘이 참석했습니다.

◆6월 3일 9차 운영위가 장충동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회원의 날 준비와 여름 연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월 8일 경인권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느라 피곤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샘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 기운을 받았지요?

◆6월 10일 근기법 모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하시면 서울지부 근기법 모임 게시 판에 가보세요—^^

◆6월 15일 경인권 교육 두 번째 날이었지요.

◆6월 18일 회원의 날이 있습니다. 돌봄 토론회 때 이야기 되었던 내용중 발달 이론, 아동중심교육 다시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봉투도 만들어 나누어 가졌지요. 무슨 봉투일까요???

◆6월 22일 경인권 교육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6월 29일 경인권 교육 네 번째 날이었습니다.

[인천지부]

◆인천지부 열린강좌를 시작했습니다.

6/12(토) 1강은 천연염색(류신정샘)을, 2강은 생태교육(이현주샘)을 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고요.

6/19(토) 3강은 등그미활동(지연샘)과 전래놀이(고정미샘)를 했습니다.

♡ 사람과사람들

환영합니다!

◆서울지부에 서은임샘이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경인권 샘들! 기억하시죠? 스승의 날 행사에 왔다가 회원 가입한 샘요— 공동육아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시구요 별명은 미르랍니다. 미르의 뜻이 궁금하시죠?

◆이현숙(별)선생님과 김영숙 선생님이 인천지부의 신입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실거라 기대합니다!

◆신입회원여러분들! 드디어 경기지부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종희샘, 김미란샘, 송준금샘, 김미숙샘, 이소연샘

축하합니다!

◆님 오래전 일이라 잊을뻔 했네요. 4월 30일에 서울지부 김수연샘이 봉어빵(?) 딸을 낳으셨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엄마랑 똑같더라는 소문이... 서울지부방에 아기 사진을 올려 놓으셨답니다.

◆우리네 아이들 편지를 해주시는 김희정샘도 지난 5월 예쁜 딸을 낳으셨답니다. 진작에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소식을 만들때가 되어서야 연락을 드렸네요...^^ 아기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시지요?

◆서울지부 김소란 샘이 6월 26일 결혼한답니다. 축하드리구요 행복하게 사세요—

◆인천시 교사평가인증단에 인천지부장님께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의 의견이 띵-띵-반영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지연 경기지부 지부장님이 치료를 위해 고생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씩 대구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부친의 박부자샘이 건강이 안좋다고 합니다. 기운 차리시고 언제나 행복해 하던 샘의 얼굴을 보여주 세요.

◆서울지부 안경자샘이 가양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 후 몸살이 나셨다는데... 이젠 괜찮으시죠?

명복을 빕니다

◆인천지부 김원희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지부 이미옥샘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기타

◆그동안 소식이 뜸하던 부친의 박양숙샘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중이라 바쁜 와중에도 경기지부에 대한 샘의 관심과 참여로 부친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왕성 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서은희샘이 단소를 배우고 계시답니다. 조만간에 멋진 연주를 듣게 해주세요—

중앙 사무실을 다녀가신 분들...

(자취를 남긴 분들만 적어드립니다. 왜냐구요? 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곳에 이름이 남길 바라는 분들은 보라색 표지로 만들어진 방문기록장에 꼭 적어주세요—o)

◆5월 10일

최종문 (^^ 내가 1등이닷!! 아이디어가 넘 좋아요. 올 때마다 쓸꼬예요— 보육교사회 파이팅!!) 박인혜 (회의하러 사무실에 오는 건 싫다. 낮에 한번 그냥 놀러와야지. "수고 많이 하세요 사무

국 식구들")

이선미 (반갑습니다. 저 회의하러 갑니다!)

◆5월 11일

이경아 (건강 챙겨가며 일하세요. 좀 대중하셔도 되구요!)

이수미 (종군요. looks good! -019를 쓰다보니...^^)

김은규 (사무실에서 나는 나무 냄새가 종군요) 한송이 (수고하세요^^ 새로 생긴 장 멋있어요. '히' 했어요~)

◆5월 18일

동김성혜 (나날이 발전하는 교사회가 되고, 원칙과 소신있는 활동을 꼭- 진행하세요.)

◆5월 19일

백근영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5월 24일

윤연숙 (보육교사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5월 25일

이은애 (남기신 말이 없군요. 여성단체연합에 회의하러 오셨다가 들리셨답니다.)

◆6월 17일

유현경 (좋은 엄마에서 일하시는 분이구요 사업차(?) 보육교사회 사무실에 오셨답니다.)

☐ 회비를 내셨습니다

(04년4월19일-6월15일까지 입금분입니다)

<지부회비>

서울, 경기, 인천, 광주전남, 대구지부 4.5월 cms 지부회비 완납, 부산지부 3.4월 회비 완납

<중앙회비>

노수산 2만원, 김지희 1만원, 최루미 1만원, 서은희 2만원, 조선경 2만원, 하미선 2만원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교사 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정회원이 되면.....

- 매월 1만원+8(연회비 12만원과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 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이 되면.....

- 연 6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회원이 되면.....

- 연 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면.....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월간 좋은엄마]에서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이야기 '월간 좋은엄마'!
국내 유일의 '여성 육아 교양지'로 자리잡은 '월간 좋은엄마'는
엄마의 고민을 듣고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잡지,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마들의 노력을 담은 잡지,
무엇보다 '엄마라서 행복한 이유'를 발견해내는 잡지입니다.
'월간 좋은엄마'는 이미 10만의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엄마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 세상

한국보육교사회를 통해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면 한 분당 5000원씩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구독신청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1년 구독료 25,000원)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

한국보육교사회 전화 02-2271-1548